

5일 Market Index			
코스피	7003.74	코스닥	893.29
(+32.39)		(-1.00)	
금리	3.937	환율	1344.15
(-0.072)		(-6.45)	

반도체 투톱, 영업익 180조 잭팟 생산시설 등 미래 성장에 재투입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07조
SK하이닉스, 28% 증가한 77조
양사, 국내 중장기 투자 3200조
생산시설 대규모 확충 등 본격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180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지만 늘어난 이익만큼 투자해야 할 곳도 빠르게 늘고 있다. 양사가 계획한 국내 반도체 중장기 투자만 총 3200조원에 달한다. 이에 양사는 실적 개선으로 확보할 현금을 생산시설 확충에 투입하며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06조9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89조5000억원보다 약 19% 늘어난 규모다. 시장 전망대로라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선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77조 2214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2분기 60조 5426억원보다 약 28% 증가한 수준이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합치면 184조 1614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끌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D램 가격도 오르고 있다. 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위)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 모습. /각사

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에 범용 제품의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HBM은 일반 D램보다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만큼 공급을 늘리려면 생산시설 확충

이 뒤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메모리 호황으로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향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해커 표적’ 은행… 보안 취약점 4777개

20개 은행, 수년간 481회 모의해킹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 우려
“시스템 중단 등 취약점 보완 어려워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응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고객정보 보호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국내 은행에서 발견된 일부 보안 취약점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해킹으로 고객 계좌에서 자금이 탈취되는 등의 직접적인 금융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여러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만큼 계좌 탈취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 481차례 모의해킹서 취약점 4777개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81회 모의 해킹을 진행해

4777개의 유요 취약점을 발견했다.

모의해킹(침투테스트)은 실제 해커와 동일한 공격 기법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인프라에 침투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자체 보안 인력뿐 아니라 금융보안원 화이트해커 등 외부 전문인력과 연계해 매년 모의 해킹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AI 활용 확산으로 취약점 발굴의 양과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발견된 취약점을 즉시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국내 은행 20곳은 지난 2024년 107회의 모의해킹을 실시해 1071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금융원 측은 “해당 취약점을 보완하려면 시스템 중단이나 전면 교체가 필요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완 전까지 보안장비 차단 규칙 등록이나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래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사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패치만으로 취약점

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보안업계 관계자는 “일부 취약점은 수십년간 쌓아온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당시 담당자가 퇴직해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나 기술적 가능성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악한 고리’ 노린 AI 해킹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연쇄 해킹을 계기로 드러난 금융권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진화하는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을 전수 점검하고,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전 금융권에 지시했다. 대출모집인이나 위탁업체 등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가 조화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의 누락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3면에 계속〉/이유리 기자 yul115@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韓 GDP 2.4% 올랐지만 ‘고용 없는 성장’

상반기 OECD 중 5위·G20 중 3위
2분기 고용률 69.8%, 회복세 꺾여

우리나라가 성장을 경쟁에서 실로 오랜만에 궤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중간 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는 3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성장세라는 우려도 나온다. OECD 38개국의 고용률 평균은 올해 2분기에도 우상향 흐름을 지속한 반면, 한국의 해당 수치는 5개 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5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1분기(1.8%)와 2분기(0.6%) 경제성장률을 합산한 수치가 2.4%에 달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0.4+0.6=1.0%)을 크게 웃돈다. 작년 상반기 대비는 아니지만 단순 합계 기준으로 한국은 아일랜드와 함께 공동 5위다.

미국은 1, 2분기 합산 1.2%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또 스웨덴(1.6%)과 튀르키예(1.4%), 스페인(1.3%), 뉴질랜드·멕시코·영국·포르투갈(1.1%) 등이 1%대에 자리했다. 네덜란드·일본(0.9%)과 캐

나다(0.8%), 독일·호주(0.7%), 이탈리아(0.5%), 체코(0.3%), 벨기에(0.2%), 프랑스(-0.2%) 등은 1%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 위로는 이스라엘(3.1%)과 슬로베니아(2.8%), 덴마크(2.6%), 스위스(2.5%) 등 네 곳뿐이었다.

G20 중에서도 인도(3.9%)와 인도네시아(2.6%)만이 한국에 앞섰다. 한국에 이어 중국(2.2%)이 4위에 올랐고 브라질이 1.6%, 남아공이 0.2%, 아르헨티나가 0.1%, 사우디아라비아가 -6.2%를 기록했다.

OECD의 다른 통계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 왔다. 2023년 2분기 70.0%에 도달한 뒤 2024년 2분기에 70.2%, 2025년 2분기에 70.3%까지 올랐다. 2026년 2분기엔 사상 최고인 70.4%를 찍었다.

한국에서도 고용 회복세 추이가 나타났지만 올해 다시 꺾였다. 최신 집계인 올해 2분기 기준 고용률 69.8%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69.7%) 이후 5개 분기 사이 가장 낮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여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에 “재정비·재점검” 한목소리

▲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조사일 뿐…정상적 보유한 분들은 불이익 없어” /사진 뉴시스

▲ 국힘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李 규제만능주의가 초래”

▲ 안철수 “군사분계선 이어 NLL까지…정부, 안보 경계선 후퇴시켜”

▲ 29일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6~19일 사전신청 접수

▲ 與 “조희대, 국감장 출석해 소명하라”…당 일각선 탄핵 가능성 거론도

에너지 위기에 ‘탈러시아’ 급제동 유럽·프 등 실용주의 움직임 확산

LNG 등 중동발 공급 불안 지속
英, 사할린II 대러제재 일시 면제
韓·日, 기존 러시아산 물량 유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에서 러시아산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일본은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도 기존 러시아산 물량을 유지하고, 중국·베트남은 도입 기반을 확대하거나 신규 공급을 검토하는 등 러시아산 LNG를 활용하는 실용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으로 수입하는 사할린II LNG에 대해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대러 제재를 면제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6월 17일 이전 계약 물량으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시적 예외를 확보했다. EU와 영국의 러시아산 LNG 운송·보험 서비스 제한으로 2027년 이후 도입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가 예외를 요청해 온 결과다.

가스공사의 사할린II 도입량은 연간 150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3%이며 동절기 비중이 높다. 한국은 카타르·미국·호주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해 지난 2023년 러시아산 LNG 수입량을 전년 대비 13% 줄였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할린II는 우선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도 러시아산 LNG 의존도를 낮추면서 사할린II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



호르무즈 해협.

/뉴시스

다. 러시아산은 전체 LNG 수입의 약 9%로, 미쓰이와 미쓰비시가 사할린II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2028~2033년 계약 만료에 대비해 미국산 LNG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사할린II 대체 시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U는 가스 수입 내 러시아산 비중을 전쟁 전 45%에서 12%까지 낮췄지만 탈러시아에는 부담이 따른다. 유럽감사원은 지난달 EU 집행위가 필요한 투자액을 3000억유로로 추산한 반면 회원국의 투자 약속은 543억유로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체 화석연료와 인프라 투자 부족에 낮은 가스 재고까지 겹쳐 겨울철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러시아산 LNG 도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국영 PV GAS는 최근 러시아 노비테크와 신규 LNG 공급과 국제 입찰 참여를 협의했다. 중국은 제재 대상인 '아크틱 LNG 2' 물량을 수입하는 광시성 베이하이 터미널에 이어 연간 500만t 규모의 산둥성 룽커우 터미널을 추가

수입 거점으로 준비하고 있다.

중동발 공급 불안은 러시아산 LNG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LNG 수송량은 지난달 하반기 들어 늘었지만, 이 추세가 이달에도 이어져도 월간 수송량은 전쟁 이전의 25%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러시아의 공급 능력과 기존 장기계약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러시아산 LNG를 배제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도 에너지·자원 교역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며 러시아는 브릭스(BRICS) 등으로 공급처를 넓히고 서방 역시 거래를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7 회원국인 일본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도 다변화와 함께 기존 러시아산 에너지 경로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실용적인 자원의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기후부, 변동금리 연 2.5%→연 2.0%
기업 이자부담 연간 약 50억 감소 전망

정부가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용자 금리를 낮춘다.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에 필요한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용자 사업으로 올해 총 2765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사업비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ESCO와 열수송관 사업은 100%까지 지원한다. 사업장당 융자 한도는 최대 300억원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ESCO 투자 사업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연 2.5%에서 연 2.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기

후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융자 지원기업의 총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 원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후부는 기업의 금융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에 앞서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인하된 금리를 올해 4분기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중소기업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상반기 신차 판매, 가솔린차 비중 첫 50% 하회

5일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신차 판매에서 순수 가솔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수익 좇는 코인 개미… 해외거래소 머니무브

가상화폐 투자자들 활동 범위 확대
2분기 스테이블코인 약 1.7조 순유출
내년 소득 과세시 추가 이탈 가능성

직장인 김상중(35)씨는 지난 4월 한국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2000만원어치 사서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보냈다. 이 자금 중 대부분은 바이낸스에서 가능한 '이더리움 선물'에 투자했다. 그는 "한국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한 선물 투자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 해외 거래소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코인=달러'처럼, 코인(가상 화폐) 가격이 법정 화폐에 연동되는 가상 화폐다. 실제 달러보다 매매나 해외 송금이 쉬워 가상 화폐 투자용으로 많이 쓰인다. 40대 자영업자 이대연(가명)씨는 지난 5월에 한국 거래소 코빗에서 '서클'이 발행하는 달러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사서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옮겼다.

고위험·고수익을 좇아 해외로 활동을 넓히는 가상 화폐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2025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5년 7~12월 한국

5대 가상 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해외 가상 화폐 거래소로 빠져나간 자금은 87조3000억원이었다. 국내에 들어온 가상자산은 88조 6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만 떼어 보면 정반대다. 하반기 해외 출고액이 입고액보다 4조1000억원 많았고, 상반기(5조7000억원)를 더하면 한 해 동안 9조8000억원이 순유출됐다.

올해 들어서도 같은 흐름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순유출된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1조 687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해외로 나간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온 것보다 많았다.

투자자 중 다수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인 가상 화폐 선물 투자를 위해 해외 거래소를 선택한다. 선물 투자는 상품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거래소에선 가상 화폐 선물 투자가 금지돼 있지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중엔 자기 자본의 약 100배까지 돈을 걸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어 초고위험·초고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들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종목 현·선물을 상장해 국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가상 화폐를 약속한 기간 동안 넣어두면 정해진 보상을 주는 이른바 '스테이킹(staking·예치)'을 할 때도 해외 거래소 이자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 표시 실물연계자산(RWA)을 비롯해 탈중앙화 금융(DeFi)을 이용하려는 수요도 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옮겨가는 투자자는 더 늘 전망이다. 정부가 12월부터 거래소의 해외 이전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22%를 과세할 방침이어서다. 타이거리서치가 최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68.1%, '개인지갑을 활용한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간(P2P) 거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64.2%에 달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metro

자회사 등 투자처 확대… 실적 개선 기대감

>> 1면 '반도체 투톱, 영업익'서 계속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국내에 약 24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투자액만 약 2100조원에 달한다. 용인과 기존 반도체 단지에 1650조원을 투입하고, 광주에는 400조원을 들여 신규 반도체 팹 2개를 구축한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팹은 당초보다 약 1년 빠른 2029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한다.

HBM 생산능력도 늘린다. 온양에 HBM 팹 5개 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천안의 관련 설비를 증설한다. 이를 포함해 올해 시설투자액과 연구개발(R&D)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거점을 확대한다. 팹1은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하고 팹2는 연말 착공해 2030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국내에서 총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를 추진한다. 용인에 600조원, 청주에 10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네 번째 팹 완공 시점도 당초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긴다.

투자 집행도 시작됐다. 지난 8월 용인

Y2와 청주 M17 건설에 각각 35조2000억원과 19조1000억원 등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인디애나에도 40억달러(약 5조6000억원) 이상을 들여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투자처는 자회사 솔리다임까지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수요가 늘면서 추가 투자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내부 자금과 외부 자본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솔리다임의 미국 기업공개(IPO)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 개선에도 대규모 투자 지출을 이어갈 전망이다.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한 생산시설 확충에 해외와 자회사 투자까지 맞물리면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지난 1일 "자금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투자를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내부 자금과 외부 자본 등 투자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시장 상황과 투자 시점,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2금융·P2P도 고객정보 털렸다… 금융권 보안체계 ‘도마위’

예가람저축, 4만명 고객정보 유출
웰컴저축, 법인명·이름 등 2200건
AI활용 동일범 소행 가능성 제기
정보보호체계 인증 ‘속수무책’ 지적
금융위 “국민들 피해 없도록 최선”

시중은행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부 해킹으로 추정되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금융권에서도 유사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으로 해킹 피해가 번지면서 금융권이 공시해 온 정보보호 체계 실효성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신용접수에 연 소득까지 털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티테크놀로지스(PFCT), 모우다 등 2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재까지 2금융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예가람저축은행이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약 4만 명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은 현재까지 법인고객 정보 2200건이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한다. 법인명, 법인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현대캐피탈에서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정보가 탈취됐다. 이름, 전화번호에 이어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됐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침해위험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P2P업계에서도 해킹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PFCT에서는 고객 302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모우다도 최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특히, 모우다는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에 더해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조회된 KCB 신용접수,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연 소득, 당사 내부 가산사 신용등급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안내했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

◆ 추석 연휴 동시다발적 해킹

이번 금융권 집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추석 연휴 시점 전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자사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 접근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PFCT는 지난달 27일 오전, 모우다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부터 28일 오전 2시경 사이에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동일범 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는 시중은행 공격에 쓰인 IP와 다르나 해킹 수법에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I 도구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동화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탈취 공격이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 등에서도 유사한 접근 시도가 있었으며, 보험사와 증권사에서도 외부 해커의 시스템 접근 흔적이 발견됐다. 다만, 고객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정보보호 체계 실효성 의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투자액을 늘리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정보기술부문 투자액 237억1350만원 가운데 15.8%인 37억5182만원을 정보보호 부문에 투입했다. 직전연도 15%에서 0.8%포인트(p) 확대됐다. 다만, 정보보호 전담 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축소됐다. 정보기술부문 인력 가운데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8.3%에서 지난해 7.6%로 0.7%p 줄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저축은행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회사기도 하다. ISMS 인증은 금융보안원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체계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대캐피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08년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 2024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을 추가로 갱신했다고 공지하고 있다.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갱신해 왔다는 설명이다.

P2P업체들도 자체 점검 결과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해 왔다. PFCT는 지난해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서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8개 영역, 137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91.4%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우다도 지난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을 받은 결과 97점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해 대응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보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보안의 기본부터 철저히 다져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채진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삼성·LG ‘AI홈’ 영토 확장… 애플·中 가세

‘스마트홈’ 시장 춘추전국시대

관련 세계시장 규모 2070억 달러
7년간 연 평균 성장률 23% 예상
삼성 ‘스마트싱스’ 4.6억명 사용
LG, AI 에이전트 ‘씽큐 클로’ 공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집 안 가전과 기기를 연결하는 ‘AI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스마트싱스와 씽큐를 앞세워 생태계를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로봇청소기에서 확보한 입지를 바탕으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애플도 AI 비서와 기존 기기 생태계를 앞세운 홈허브 출시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AI홈 주도권 경쟁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AI홈 경쟁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이 올해 2070억달러에서 2033년 8874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23.1%다. 국내 시장도 올해 68억7970만달러에서 2033년 194억534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28.5%다.

AI홈은 스마트홈에 AI를 접목해 연결된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다. 가전을 단순히 원격 제어하는 수준에서 여러 기기와 서비스를 연동해 사용자에게 맞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모델이 AI홈 플랫폼 ‘씽큐’, AI홈 허브 ‘씽큐온’, 실행형 AI 에이전트 ‘씽큐 클로’를 활용한 AI홈 솔루션을 체험하고 있다. /LG전자

국내 가전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스마트싱스와 씽큐를 중심으로 글로벌 AI홈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글로벌 등록 사용자는 지난 5월 기준 4억6000만명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등록 기기 수가 2000만대를 넘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와 TV, 에어컨 등 자체 제품뿐 아니라 타사 기기와의 연동을 확대하며 연결 범위를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씽큐와 AI홈 허브 ‘씽큐온’을 앞세워 가전에서 주거 공간으로 AI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IF A 2026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는 AI 에이전트 ‘씽큐 클로’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씽큐온을 포스코에너지 ‘더샵’에 누적 1만세 이상 공급했다. LG전자가 인수한 옛 홈의 스마트홈 플랫폼 ‘호미’를 통해 삼성

전자 등 타사 제품과의 연결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공세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확보한 입지를 바탕으로 공기청정기와 주방가전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국내외 스마트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전략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로보락은 올해 2분기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23.7%로 1위를 기록했고 한국에서도 출하량 1위에 올랐다. 로보락·드림미·에코백스·샤오미·모바 등 중국계 상위 5개 업체는 글로벌 로봇청소기 출하량의 75%, 판매액의 82%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샤오미는 지난달 로봇청소기와 함께 ‘미지아 스마트 공기청정기 엘리트’를 선보였고, 드림미도 로봇청소기에서 물걸레청소기와 공기청정기, 주방가전 등으로 판매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애플도 오는 13일 약 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홈 허브와 신형 홈팟 미니, 애플TV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홈허브에는 AI 비서 ‘시리 AI’가 적용돼 얼굴과 음성으로 가족 구성원을 구분하고 일정과 메시지 등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조명과 도어록 등 집 안 기기 제어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기존 기기에서 확보한 이용자 기반을 스마트홈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애플의 강점으로 꼽힌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첨단기술 유출 2명 중 1명 ‘숨방망이 처벌’

5년여 간 총 120건 해외 유출 집계
형 선고 162명 중 77명 징유·재산형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23건, 2025년 19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13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이 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36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적발된 13건의 유출 사건 중 5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 유출이 70건으로 전체의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40건, 대학·연구소 등은 10건이었다.

기술 유출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범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62명) 및 재산형(15명)을 받은 인원이 총 77명으로 전체의 47.5%에 달했다. 피고인 2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면한 셈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당국,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체계 개편 예고

》1면 “해커 표적” 은행…’서 계속

이번 연쇄 해킹은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에서 외부 비인가자가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 접근해 2만50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처음 파악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공격자의 인터넷주소(IP)를 전 금융권에 긴급 공유했고, 각 금융회사가 자체 접속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잇따라 드러났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비인가 접근

이 확인됐다. 이어 예가람저축은행 약 4만명, 웰컴저축은행 2200건, 현대캐피탈 146명 등 제2금융권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이들 7개 금융회사에서는 동일 공격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IP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으며, 공격자는 IP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침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커들은 보안 수준이 높은 핵심 전산망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등 금융회사의 ‘약한 고리’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역 中企·서남권 반도체 키운다... 지방금융 역할 ‘톡톡’

JB금융이 기업금융 중심의 대출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낸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포용적 금융’ 기조도 설정했다. ‘지역과의 상생’을 핵심 추진 목표로 서남권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JB금융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액을 공개한 다른 금융지주들과 달리 별도의 중장기 공급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JB금융그룹이 올해 말까지 약 8조원 안팎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자산규모 대비 연간 공급액으로 환산하면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많은 금액이다. JB금융은 생산적 금융 부문에서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대기업 대출을 늘려 대출 건전성을 개선한다.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인 주담대 등 부동산 대출 취급은 줄인다.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첨단·벤처사업에 대한 자본투자도 확대한다. 포용적 금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금융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대출 공급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도 힘쓴다.



① 박춘원 전북은행 은행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북은행의 안산외국인금융센터 개점을 기념하고 있다. /전북은행
② JB금융그룹은 지난 3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장기 체류 외국인·재외동포 전용 비대면 계좌 개설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JB금융

◀ JB금융지주 본점. /JB금융

9 JB금융

JB금융그룹

◆ 지역 중소기업 성장지원

JB금융의 생산적 금융 전략은 ‘지역 재투자’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한편, 대기업 대출 취급도 늘려 대출 건전성도 확보한다. 생산적 금융 이행 과정에서 가계금융 중심으로 치우쳤던 대출 포트폴리오를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협업한 보증 상품을 공급해 금융 비용을 낮춘다. 지주사에 설치한 ‘JB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 신보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적극 취급한다.

은행 계열사의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는 비재무적 데이터를 도입해 대출 문턱을 낮춘다. 신용평가사와의 협업을 통해 은행 계열사의 대출심사 과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기업 평가를 반영한다. ESG 평가를 통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매출·단보에 치우쳤던 기존 기업 평가 체계를 고도화한다.

올해 말까지 약 8조 자본 공급 추산
기업금융 중심 대출 포트폴리오 재편
비재무적 데이터로 대출 문턱 낮춰
고부가가치 스타트업에 자금 출자
서남권 반도체단지 조성 적극 동참
장기 연체자에 적극 채무조정부터
中企·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외국인금융센터 출범... 전용 대출

비은행 계열사는 지역 혁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부가가치가 큰 벤처스타트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출자하며, 자본투자를 통해 지역 기업과의 동반 성장도 추진한다.

JB금융은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단지 조성 목표에도 적극 동참한다. 광주은행 내에 ‘반도체산업 금융지원 추진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투자 유치 이후의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방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검토한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7월 진행한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서남권 반도체단지 조성과 관련해 총괄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광주은행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지역에 투자가 발생한다고 지금이 지방은행과의 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지역 투자의 의사결정에서 지방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JB금융의 역할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

◆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JB금융은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힘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의 경제복귀를 지원하며, 불경기 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의 재기도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외국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비금융적 지원도 추진한다.

JB금융은 지역 신보와 협력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올 상반기 전남신보와의 협약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개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연체 발생 이후 회생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회생지원보증’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북은행도 전북신보와 연계한 ‘비대면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췄다.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전북은행은 지난 2025년까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뱅크 등 중·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취급했으며, 올해 들어 관련 상품이 햇살론일반과 햇살론특례보증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공급을 지속 중이다.

JB금융은 사회 구성원으로 부상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금융 공급에도 적극적이다. JB금융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서남권 이외에도 외국인 비중이 큰 수도권 주요 도시에 외국인금융센터를 출점해 운영 중이다. 기존 신용평가체계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체계도 도입해 전용 대출을 공급한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대출 공급 가운데 약 60%를 JB금융그룹 계열사가 공급했다.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을 위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비금융적 지원도 확대한다. JB금융은 지역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 미성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중이며, 최근에는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KT 네트워크 기술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연결합니다

화려한 불꽃이 번지는 서울 밤하늘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안전이 더욱 중요한 순간,
그 곳에 KT가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분할해
독립적인 가상 통신망을 제공하는
KT의 '5G SA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100만여 명의 인파 속에서도
현장의 안전요원들은 긴급 통신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무선 CCTV 영상까지 끊김 없이 확인합니다.

안전이 필요한 곳
KT 네트워크 기술이 함께합니다.

KT는 '26년 9월 5일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서 '5G SA(Standalone)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무선 CCTV 및 긴급 통신 단말 전용망을 구현했습니다.

사진 제공: (주)한화

AX Platform Company **kt**

李 정부 첫 예산 국감… 여야, ‘민생’ vs ‘국정실정’ 정면충돌

각 상임위주 주요 현안 두고 격돌
조희대,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반도체·대미투자 프로젝트 등 쟁점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3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된 각 부처의 사업을 점검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상임위원회의 주요 현안들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내란 척결’ 공세를 퍼부었던 것에 이어, 이젠 ‘민생’에 방점을 찍고 국가 주요 사업들을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6일 국회에 국정감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당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매일 오후 1시30분에 국정감사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감 대응을 통해 민생을 지켜내고 국민의힘의 선 넘는 공세를 맞대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3일 부산 부산진구 카페 산애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청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실정을 이번 국정감사에 패키지로 한 데 모아 수면 위로 부상시킬 계획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에서 갖가지 논란거리가 누적되는 만큼, 당 지도부가 ‘소수야당’ 위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실천정당’으로 변모를 꾀한다.

국민의힘도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의 체제로 전환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1순위 과제는 ‘현지 조사, 진상 규명’ 즉, 김현지·정진상 ‘성남·경기 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초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한 법제사법위원회다. 조대법관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 여당 간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삼권 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예우 차원에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게 관례였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과 만나 조 대법원장인 국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업 점검을 두고 여야가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부처를 상대로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산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가 이뤄지고 원금 회수가 가능한 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야당의 요구에도 증인 채택되지 않으면서 파행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나마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을 국감장으로 불러 국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금융 정책 및 제도, 금융권을 다루는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를 주요 현안으로 삼는 가운데, 야당이 즐기치게 증인 채택을 요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결국 나오지 않게 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위에선 ETF 사태 관련 증인 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으며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국방위원회에서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및 군 추후 조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및 부동산 공급 계획 점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국힘 “李 재판 재개”… 집회 열고 대여 공세

송레문 앞서 정권 심판 장외집회
정부 사법·안보·경제 정책 비판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공허한 함성뿐”이라며 국회로 돌아와 민생 정책과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맞받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송레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법·안보·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대여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이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없애고 법원은 길들이고, 본인 재판은 지우려고 한다”며 “더 이상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놓을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도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제정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와 치안 문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대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며 “(북한) 김정인이 아닌

국민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강통’에 비유하며 출범 준비가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다. 심지어 수사관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한마디로 ‘강통’ 중수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준비도 없이 검찰청부터 없앤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국민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수사 뺑뺑이를 돌다 끝날 판”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의 부동산·농지·금융 정책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집을, 농지 조사로 국민의 땅을, 금융 정책으로 국민의 돈을 빼앗았다”며 “이것은 정치가 아닌 ‘악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이 3일 서울 송레문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생을 외면한 지지층 결집 행보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봉천 계단, 지난 1일 중수청 앞에 이어 열흘 남짓 사이에 벌써 세 번째 거리로 나갔다”며 “산적인 현안과 엄중한 민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외에서 고함치고 복치

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로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틈만 나면 거리에 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중앙 윤리위원회를 흥위병 삼아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극단주의 경계”… 검찰개혁 ‘정면돌파’

검찰개혁 논란에 연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졌다고 재차 설명했다. 범여권 지지층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정면 돌파를 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올렸다. 우선 검찰개혁의 취지가 ‘수사·기소 분리’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든 데 대해서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하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방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에 올린 글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이 기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냐 대선 공약으로 알려진 방안과 다르다고 비판한 영상을 공유하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결을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4일) 밤 이 대통령은 X에 “전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흑색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국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나선 것은 강경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 인선 장고

국정감사 뒤 교체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2주째 고심 중이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조직 장악력 및 정부각각, 여론 지지층 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감이 마무리되는 11월까지의 강 실장이 시한부 유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5일 청와대 및 정치권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한 강 실장의 후임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에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3선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안착에 역할을 한 강 실장의 대체자를 찾기 쉽지는 않다는 평가다. 강 실장은 초기 청와대 근무체제와 기강을 다잡으며 조직 장악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수급망 불안 해소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찾아 에너지 공급망 활동을 펼치는 등 실무에서도 성과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성호·김영진·천준호·한준호 의원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영시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美 고용 식어도 韓 물가 압력… 신현송 금리 섹법에 ‘이목’

한은, 오는 22일 금통위 예정
9월 물가상승률 2.9%, 목표 웃돌아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예상
금통위 핵심은 근원품목 오름세와
기존 인상 수요·물가 반영 정도

미국의 신규고용 증가 폭이 줄었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경계는 이어지고 있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2.9%로 낮아졌어도 통신비 기저효과 소멸을 감안하면 오름세는 오히려 확대됐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 물가 압력의 지속성과 이미 단행한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핵심 판단 재료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8월의 3.1%보다 낮아졌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4%에서 2.8%로 내려왔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여전히 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돈다.

◆美 신규고용 둔화

미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발표한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2만9000명 늘었다. 수정된 8월 증가 폭 13만3000명보다 작고, 7~8월 수치도 종전 발표보다 6만명 하향 수정됐다.

실업률은 4.2%로, BLS는 고용과 실업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 부담도 남아 있다. 8월 개인소비지출(PCI)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였다. 연준은 9월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25%포인트(p) 올려 3.75~4.00%로 조정했다. 고용 증가 폭 축소만으로 추가 긴축(금리인상) 중단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연준의 금리 경로는 환율 등을 통해 국내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한은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연준 정책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금통위도 22일 열려 미국 현지 시간 27~2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보다 앞선다.

◆물가 2.9%, 기저효과 이후를 본다

국내 물가상승률 하락에는 지난해 통신비 감면의 영향이 섞여 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으로 비

교 기준이 낮아지면서 올해 8월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한은이 설명한 기저효과는 전체 물가 0.6%p, 근원물가 0.8%p였다. 이 효과가 9월에 사라졌다.

기저효과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계산하면 8월 전체 물가상승률은 2.5%(3.1%에서 0.6%p 제외)로 9월의 2.9%보다 낮다. 전체 상승률 하락을 곧바로 물가 압력 완화로 읽기 어려운 이유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점검회의에서 “8월의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소멸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은은 항공료·여행비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고,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전자제품 등 내구재 가격의 오름폭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그간 높아진 비용이 상품·서비스 가격에 계속

반영되고,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도 커질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와 환율,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물가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선행한 긴축의 효과도 확인해야 한다. 한은은 7·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올려 3.00%로 높였다. 한은은 9월 보고서 설명회에서도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어 효과가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10월 금통위가 확인할 핵심은 근원 품목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지, 기존 인상이 수요와 물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다.

한은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취약차주 대출 ‘돌려막기’ 상환부담 커진다

지난달 카드론 평균금리 14% 수준
차주들, 대환대출 사용 ‘만기 연장’
연체율 상승 등 카드사 부담도 증가

대환대출·리볼빙 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환대출과 리볼빙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과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부담이 모두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1조6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조3817억원 대비 22.7% 증가한 수준이다. 대환대출은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해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같은 기간 리볼빙 잔액은 6조7201억원에서 6조9994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올해 들어 최고치로, 7조원에 육박한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을 다음 달로 이월해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문제는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이다. 주요 카드사 대환대출 이자율은 최저 4~

5%, 최고 연 19.9% 수준에서 형성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15~18% 수준의 금리가 많이 적용된다.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가 14.10%였던 것을 감안하면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사용해 상환 부담을 낮추기보다는 단순 만기 연장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셈이다.

리볼빙의 경우 국내 전업 카드사 9곳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17.31%에서 지난달 말 17.32%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18.92%에서 19.03%로 오르며 19%대를 넘어섰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71%포인트(p) 높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늘어난 카드대출의 절반 이상이 신용평점 하위 20% 차주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취약차주뿐만이 아니다.

카드사의 연체율은 지난 2024년 2.07%

에서 2025년 1.92%, 올해 상반기 1.83%까지 하락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연체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 이는 연체액 자체 감소보다 카드사가 부실채권 매·상각을 확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 같은 기간 카드사의 부실채권 매·상각액은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약 1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상각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 규모를 매·상각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금리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카드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경우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된 수익원인 신용판매 부문에서는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늘려온 카드대출의 경우 부실위험 증대로 대손비용 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카드사 수익 기반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안채선 기자 wotjs4187@

BNK부산은행 지역작가 작품 전시

BNK부산은행이 10월 한 달간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연이어 전시한다.

BNK부산은행은 신창동 ‘BNK부산은행갤러리’에서 수목화와 사진,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까지는 최석봉 작가의 수목화 개인전 ‘부산연가파’가 열린다. 수목담채의 정교한 먹선과 은은한 채색을 통해 부산의 근대 건축물과 항구, 도심 마을 등 익숙한 지역의 풍경을 담아냈다.

/안송진 기자



한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네 번째),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다섯 번째) 등 주요 내외빈들이 지난 2일 청라 헤드쿼터 앞 글로벌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 청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열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15년 만에 ‘청라 금융타운’ 완성

‘헤드쿼터’ 오픈 행사 열어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청라 헤드쿼터의 문을 열고 15년에 걸친 ‘하나금융타운’ 조성을 마무리했다. 그룹 주요 관계사와 금융·IT 인력을 청라에 집결시켜 관계사 간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과 지역 금융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일 청라 헤드쿼터 오픈 행사를 열고 하나금융타운의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부터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서 하나금융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2019년 하나글로벌캠퍼스를 개소했고, 올해 청라 헤드쿼터까지 문을 열면서 15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청라 헤드쿼터는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약 12만8000㎡ 규모다. 지난달부터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주요 10개 관계사 임직원 약 2200명이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기존 통합데이터센터 근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향후 청라 하나금융타운에는 약 4000명의 금융·IT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청라 헤드쿼터를 그룹의 새로운 중심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금융 관계사의 사업 역량과 통합데이터센터의 IT 인프라를 한곳에 모아 금융

협업과 IT·데이터·디지털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AI 전환(AX)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과 금융·기술 융합 서비스 발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무공간 역시 관계사와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무 층별로 전용면적 약 1100평의 수평 공간을 조성하고, 3~7층과 10~14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을 설치했다. 부서와 본부, 관계사별로 분리됐던 기존 사무공간의 한계를 넘어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디지털 업무환경도 강화했다. 5G 무선 환경과 클라우드 PC(VDI), 노트북, 메신저, 스마트폰 등을 도입해 특정 좌석이나 유선망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앱과 웹을 통해 좌석과 회의실뿐 아니라 스포츠 마사지, 캡슐룸, 피트니스센터 등 복지시설까지 예약할 수 있는 스마트 건물 이용 시스템도 구축했다.

하나금융은 청라 헤드쿼터를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건물 상층부에는 스카이프크와 글라스데크를 조성하고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램프 계단을 설치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청라를 거점으로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AI·바이오·문화·에너지 등 인천의 미래 산업과 금융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최고금리 9% ‘다함께 적금2’

12개월 만기, 월 최대납입 30만원

우리은행이 최고 연 9%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2’를 특판한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의 대표 금융 축제 ‘2026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의 개막을 맞아 최고 연 9.0%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2’를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2’는 12개월 만기의 비대면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은 30만원이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특판한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그룹 계열사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에 우리은행과 그룹 계열사를 이용 중인 고객까지 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기본금리는 연 3.5%로 설정했으며 ▲우리카드와 동양생명·ABL생명, 우리투자증권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연 2.0%포인트(p)의 우대금리 ▲우리WON모바일·삼성웰넷·머니투데이문 이용 시 최대 연 0.5%p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신규고객의 경우 3.0%p의 신규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우리은행과 그룹 계열사를 이미 이용 중인 고객까지 금리 우대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

삼성, Z폴드8 ‘0.001g’ 단위 최적화 외신 “여러 세대 개발한 경험 빛나”

디스플레이 공간 등 구조 재설계
작은 개선을 기기 전반에 쌓아
아이폰 듀오 대비 약 21% 가벼워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0.001g 단위의 미세한 감량부터 디스플레이와 내부 부품 배치까지 기기 전반의 설계를 최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보다 53g 가벼운 무게를 구현한 배경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한 폴더블폰 설계 경험이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온다.

5일 IT 전문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8은 아이폰 듀오와 동일한 7.6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지만 무게는 201g으로 아이폰 듀오(254g)보다 53g, 약 21% 가볍다. 두께 역시 폴드8이 접었을 때 9.7mm, 펼쳤을 때 4.5mm로 아이폰 듀오의 11.3mm, 5.2mm보다 얇다.

샘모바일은 이 같은 차이가 디스플레이 지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 배터리 공간, 방열 시스템 등 기기 전반을 재설계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폴드8에 티타늄 합금 필름과 티타늄 플레이트를 적용한 ‘플렉스 티타늄’ 구조를 적용했다. 티타늄 합금 필름은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구조를 기존보다 10% 얇게 만들면서도 화면을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설계했다.

외부 프레임에는 ‘어드밴스드 아머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티타늄은 디스플레이 하부 등 필요한 부분에 적용했다. 아이



‘갤럭시 Z 플립8’,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등 폴더블 신제품 3종./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폰 듀오가 외부에 5등급 티타늄, 내부 구조 프레임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과 다른 방식이다.

부품 단위에서도 무게를 줄였다. 삼성전자는 약 270개 부품과 180종 이상의 보조 부품을 검토해 회로기판을 재설계하고 약 15종의 보조 부품을 제거하거나 하나의 구조로 통합했다. 일부 변경을 통해서 0.001g 수준까지 무게를 줄이는 등 작은 개선을 기기 전반에 쌓아 전체 무게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방열 구조도 차이가 있다. 폴드8은 개선된 그래파이트와 접합 금속층을 활용해 열을 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아이폰 듀오는 프로세서와 맞춤형 베이퍼 챔버를 연결해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내부 공간을 효율화하면서 배터리 용량도 확보했다. 폴드8에는 4800mAh 용량의 실리콘-탄소 배터리가 탑재됐다. 디스플레이와 내부 부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는 동시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얇은 두께와 배터리 용량을 함

께 확보한 것이다.

내구성 검증도 병행했다. 삼성전자는 최신 갤럭시 Z 시리즈에 반복적인 폴딩과 낙하, 압력, 습기·이물질 등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샘모바일은 삼성전자가 폴드8을 201g까지 낮추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부터 회로기판과 보조 부품, 배터리와 방열 구조까지 기기 전반을 재검토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품을 작게 만들고 배치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폴더블폰을 개발해 온 경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갤럭시 Z 폴드8은 S펜을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아이폰 듀오는 올해 말 애플펜슬 지원이 예정돼 있어 필기나 스케치 등 펜 활용을 중시하는 이용자에게는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샘모바일은 짚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지분 매각 추진

PRS 방식으로 주주 영향 최소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자금 마련을 위해 9440억원 규모의 SK(₩) 지분 매각에 나선다. 다만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진행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총 944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상 거래 목적은 ‘개인 소요 자금 조달’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액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PRS는 정산 시기의 주가가 계약 당시 주가보다 높으면 해당 차액을 발행사가 가져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발행사가 증권사에 차액을 보전하는 파생상품이다. 정규시장에 대량의 주식을 한 번에 팔면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가 주식을 먼저 사간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이 본인 주식을 넘긴 것이다.

주식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최

회장은 4000억원의 현금을 즉시 확보할 수 있다. 3년 뒤 한국투자증권이 주식을 처분할 때, 주가가 기준가(58만7000원)보다 높으면 차익을 최 회장에게 지급하고, 낮으면 최 회장이 손실을 보전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2.3%포인트(p) 낮아진다.

SK그룹 측은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과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래 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분 매각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낮아지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30.5%를 유지한다. SK그룹은 안정적인 경영 기반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PRS 방식을 선택하면서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구구지치와 경영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형 전동지게차 선택

10~18t급 추가… 전동화 수요 공략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대형 전동지게차를 선보이며 디젤 중심의 고중량 산업현장 전동화에 나선다. 중형에 이어 대형까지 제품군을 넓혀 조선소·항만·철강 등에서 전동화 수요 공략에 속도를 낸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충북 음성 공장에서 ‘차세대 전동지게차’ 신모델 시승 행사를 열고 양산에 돌입한 10~18톤(t)급 대형 전동지게차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중형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10~18톤급 대형 모델을 추가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전동지게차 라인업을 구축했다. 국내에서 10톤급 이상 대형 전동지게차를 제조하는 업체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유일하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과 급속 충전 기술을 적용해 내연기관 제품과 동급의 작업 속도와 등판 성능, 출력을 구현했다. 18톤급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최대 9시간 작업할 수 있다. 120kW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1.5시간 만에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장비에 따라 1회 충전으로 최대 14시간까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출시한 16톤급 대형 전동지게차. /HD현대건설기계

지 가동할 수 있다.

안전성도 강화했다. 고전압 회로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설계를 적용해 미국 배터리 시스템 안전 표준인 ‘UL 2580’ 인증을 확보했다. IP67 등급 이상의 방수·방진 설계도 적용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중장도 작업 기준 약 2~3년이면 디젤 제품과의 초기 가격 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대형 차세대 전동지게차는 내연기관 지게차에 준하는 성능을 바탕으로 생산성 저하 없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중심 해외시장 질주

북미·유럽 등 글로벌 판매 호조
‘친환경·전동화’ 맞춤형 전략 주요
국내 신차 출시·생산 정상화 과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3분기 국내 시장에서 판매 감소를 겪은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친환경차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차(HEV)가 판매 확대를 견인했고, 유럽에서는 전기차 중심의 전동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역별 맞춤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글로벌 판매는 각각 91만8660대, 84만6764대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했지만 기아는 7.9% 증가하며 역대 3분기 최대 판매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현대차는 해외 판매가 78만7192대로 8.2% 감소한 반면 국내 판매는 13만1468대로 27.2% 급감했다.

기아는 국내에서 14만522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지만, 해외 판매는 70만3494대로 8.9%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3분기 스포티지 15만346대, 셀토스 10만9256대, 쏘렌토 5만6928대 등 SUV 중심의 글로벌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북미에서는 친환경차 전략이 성과를



기아 스포티지.

/기아

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 각각 24만6896대, 23만6659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현대차는 3.3%, 기아는 7.8% 증가한 것으로 양사 합산 판매는 48만3555대에 달했다. 현대차는 3분기 미국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기아 역시 사상 최대 분기 판매를 달성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HEV가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현대차의 3분기 미국 판매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은 28%까지 확대됐으며,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미국 3분기 하이브리드 판매는 13만8112대로 전년 대비 53.4%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유럽 판매는 53만4525대로 전년보다 0.8% 감소했지만, 기아가 29만697대로 6.9% 증가하며 선방했다. 현대차도 투싼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EV, 캐스퍼 일렉트릭 등이 친환경차 판매를 뒷받쳤다.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8월까지 EU 시장에서 BEV 판매 비중은 21.7%로 1년 전 15.8%에서 크게 확대됐고, 하이브리드차 비중도 36.6%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대차의 판매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파업과 추석 연휴, 신차 대기수요 등이 겹치며 3분기 국내 판매가 크게 줄었다. 기아 역시 국내 판매 증가폭이 해외보다 제한적이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의 3분기 실적이 ‘내수 부진·해외 전동화 성장’이라는 양극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북미에서는 HEV, 유럽에서는 EV라는 지역별 소비자 선호에 맞춘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판매 방어에 나서는 반면 국내에서는 신차 출시와 생산 정상화를 통한 판매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최근 한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관련해 “최근 한국 시장에서의 일시적인 판매 조정은 제품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타이어, ‘벤티스’ 딜러·소비자 점점 확대

‘2026 벤티스 익스피리언스 데이’ 성료

한국타이어가 딜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초고성능타이어 브랜드 ‘벤티스’의 주행 성능을 알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2026 벤티스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수도권 딜러사 관계자 48명이 참여했다. 이튿날에는 800명 남짓 지원한 사전 모집을 거쳐 선정된 일반 소비자 48명과 자동차 인플루언서 48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BMW M2부터 M5까지 고

성능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트랙과 짐카나 코스를 주행했다. 쫓는 노면에서 긴급 제동과 회피 주행도 체험하며 ‘벤티스 에보’와 ‘벤티스 S1 에보 Z’의 접지력과 핸들링, 제동 성능을 확인했다.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고속 주행과 급격한 코너링을 체험하는 ‘M-TAXI’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해당 차량에는 엑스트림 슈퍼 스포츠 타이어 ‘벤티스 에보 Z’를 장착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5월 비수도권 딜러를 대상으로 같은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 딜러와 일반 소비자도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승혁 기자 sh95@

美, 중국산 배터리 빚장… K-ESS, 북미 전력망 잡는다

美·EU, 中 장비 안보 규제 강화
韓 배터리, 대체 공급사로 ‘주목’

LG엔솔, 생산능력 50GWh 확보
삼성SDI, LFP 배터리 양산 추진
SK온, 라인 전환하고 공급 계약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 강화로 LG 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 한국 업체의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에너지저장 장치(ESS) 수요도 늘면서 국내 업체는 북미 생산능력과 원료·소재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과 차세대 배터리·장주기 ESS를 앞세우고 있어 한·중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중국 기업에 집중된 ESS 배터리 공급망을 에너지 안보 문제로 보고 중국산 장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력망 장비 도입과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고위험 국가의 핵심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부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한국산 배터리는 중국산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공급망 안보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한국 업체들이 대체 공급사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산 장비의 사용이 제한될수록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 한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는 북미 ESS 시장에서 출하를

늘리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SNE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합산 점유율은 19.7%로, 전년 동기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5개 ESS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생산능력을 50GWh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배터리 생산 확대와 함께 시스템 통합 법인 버테크를 통해 설계·운영·유지보수까지 지원하며 고객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

난탈에는 엔비디아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플랫폼 ‘DSX 레디’ 공급 파트너로 선정됐다.

생산 확대에 필요한 현지 원료 조달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스맥오버 리튬과 계약을 맺고 2029년부터 10년간 탄산 리튬 총 8만톤을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탠플러스에너지(SPE)의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올해 10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에서 생산할 LFP 배터리 기반 일체형 ESS ‘SBB 2.0’의 안전성 검증도 마쳤다. 지난달 UL 솔루션즈의 대형 화재시험에서 인접 랙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고 외부 스프링클러 없이 자체 진화하며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SK온도 미국 조지아 공장의 일부 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네오볼타파워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9GWh의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엘앤에프와 약 1600억원, 포스코퓨처엠과 1

조1000억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으며 소재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ESS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와 우드맥кен지는 미국의 대규모 ESS 연간 신규 설치량이 향후 5년간 출력 용량 기준 연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업체들도 시장 지배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CATL은 나트륨 기반 ESS 배터리의 상용 공급을 시작했고 중국의 풍력·에너지저장 기업 엔비전그룹은 최대 16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장주기 저장 시스템을 선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를 기회로 보고 있지만, 실제 규제 강도와 적용 범위는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산 소재를 당장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다. 국내 소재 사용을 확대하되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첫 국정감사 앞둔 이소영… 정책 실효성·中소 지원 검증대

〈중기부 장관〉

내일부터 30일까지 세 차례 진행
온누리상품권 개편안 효과 점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지원 논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과 모태펀드의 운영 실효성,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중기부 국감은 오는 7일을 시작으로 15일 산하 공공기관 감사, 30일 종합감사까지 세 차례 진행된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 장관을 상대로 중기부의 주요 정책과 업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됐지만 2024년 국감에서 대규모 부정 유통이 적발된 이후 사용자 관리와 정책 효과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가맹점에 결제가 몰리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란이다. 올해 8월까지 전체 결제액 3조 3369억원 가운데 73.7%인 2조 4592억원이 결제액 상위 10% 가맹점 2만 2581곳에서 사용됐다. 상반기 결제액이 가장 많았던 가맹점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구매처로 알려진 서울 A약국으로, 260억원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달 1일 사용자에 따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달리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개편안이 결제 편중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모태펀드는 투자 성과와 수도권 편중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개별 투자조합인 자펀드에 출자하는 정책 펀드다. 중기부 자료를 보면 청산이 끝난 자펀드 352개가 투자한 기업 3541곳 가운데 1817곳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전체의 51.3%에 해당하며 168곳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2687곳으로 전체 투자기업의 75.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도 검증 대상이다.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상대 기업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80건 중 해결 사례는 시정권고 1건과 조정 성립 4건 등

5건에 그쳤다. 올해 초부터 피해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기술탈취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피해 구제 성과와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와 지원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입점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1400억원을 확보했다. 박성민·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감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자금 집행 현황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분리발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기존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산업 참여 방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장관 취임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신규가입 확대 친구 추천 이벤트 진행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신규 가입을 확대하고자 ‘친구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기존 가입자가 지인에게 노란우산을 추천하고 해당 지인이 신규 가입을 하면, 추천인과 신규 가입자 모두 디지털페이 5만원 쿠폰(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중 택1)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인 추천 횟수에 제한이 없다.

참여를 원하는 가입자는 노란우산 앱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 ‘친구 추천 이벤트’ 메뉴에서 자동 생성된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면 된다. 지인이 문자 메시지의 가입링크로 신규 가입을 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디지털페이 쿠폰은 다음 달 중으로 추천인과 신규 가입자 휴대폰으로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승혁 기자

트리니티항공 국제선 60개 노선 대상 10월 항공권 프로모션

트리니티항공이 가을부터 연말·연초까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권 할인에 나선다.

트리니티항공은 국제선 60개 노선을 대상으로 ‘10월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탑승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 할인코드 ‘OCT26’을 입력하면 노선과 탑승 기간에 따라 최대 22% 할인받을 수 있다. 일부 노선에서는 비즈니스석 할인도 적용한다. 20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5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탑승객을 위한 제휴 혜택도 마련했다. 유럽 기차 요금을 최대 8%, 박버스 투어를 20% 할인하며 국립항공박물관 우대 요금도 제공한다.

/이승혁 기자

프리미엄 수입차, 전기차 vs 가솔린 엔진 ‘승부수’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 공식 출시
렉서스 ‘올 뉴 ES’ 전동화 수요 공략
지프, ‘뉴 그랜드 체로키 L’ 성능 강화

연말을 앞두고 프리미엄 수입차업체들이 잇따라 신차를 투입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포르쉐와 렉서스는 주력 모델의 순수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지프는 새로운 가솔린 엔진을 앞세우는 등 브랜드별 전략도 엇갈리고 있다.

5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카이엔 일렉트릭’을 국내 공식 출시했다. 이어 지난 2일 서울 마

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포르쉐 바이트 서울’에서는 신형 카이엔 터보 쿠페 일렉트릭’을 국내 최초 공개했다.

포르쉐의 첫 양산차 356부터 역대 911과 모터스포츠 차량 등 70여대가 모인 행사장에서 최신 전동화 모델인 카이엔 터보 쿠페 일렉트릭도 모습을 드러냈다. 국내에서 3만 4000대 이상 판매된 핵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카이엔에 내연기관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이어 순수전기 파워트레이ンを 추가한 것이다.

최상위 카이엔 터보 쿠페 일렉트릭은 런치컨트롤 작동 시 최대 1156마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

5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260km다. 113킬로와트시(kWh) 배터리와 800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특정 조건에서 최대 400kW 충전을 지원하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16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렉서스도 오는 13일 8세대 ‘올 뉴 ES’를 국내 출시하며 전동화 선택지를 넓힌다. 신형 ES는 기존 하이브리드(HEV)에 더해 모델 역사상 처음으로 배터리전기차(BEV)를 추가한다. 국내에서도 HEV와 BEV 모델을 함께 운영하며 전동화 수요를 공략할 예정이다.

반면 지프는 내연기관 성능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국내 출시한 ‘뉴 그랜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요금 아끼려 만든 ‘최적요금제’ 고지… 알뜰폰은 빠졌다

통신사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시행
알뜰폰 가입자 1050만명 사각지대
업계, 비용 부담에 주기 완화 요구

이동통신가입자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더 적합한 요금제를 알려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이달 1일 시행됐다.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취지로 내걸었지만, 알뜰폰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럽연합(EU)은 오히려 정기 고지 의무를 줄이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에 따라 앞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고객들의 실제 이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를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야 한다. 요금제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고지해 상품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의 통신사 대리점 모습.

다만 알뜰폰 고객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논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적요금제 시행 대상을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사업자로 제

한하면서다.

민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최적요금제 시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다양한

요금제가 경쟁하는 알뜰폰 시장이야말로 최적요금제를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 1000만 시대를 맞으면서 요금제 구성도 수천 개로 알려졌다. 올해 7월 기준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알뜰폰 가입자는 약 1050만 명으로, 이는 통신 3사 중 가입자가 가장 적은 LG유플러스(1110만)와 맞먹는 규모다.

유럽은 국내와 달리 최적요금 고지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신설하면서 최적요금의 정기 고지 의무를 없앴다. 2018년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에 따라 최소 연 1회 안내하던 것을 재계약이나 약정 만료 시점에만 안내하도록 바꿨다. 정기 고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통신 3사는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현

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에게 이용량을 분석해 요금제를 안내하려면 별도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도 시행 전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추산한 통신 3사의 비용 부담은 3년간 약 437억원이다. 여기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같은 논란에도 통신 3사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적요금제 고지를 시작할 전망이다. 최근 최적요금제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이 정부의 규제 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되면서 통신업계가 요구한 ‘12개월 주기’가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아이온2, 글로벌 출시 전 스팀 17만명 기록

엔씨, 스팀 매출 기준 ‘톱 셀러’ 1위
‘쓰론 앤 리버티’ 이용자 약 3배 달해

엔씨의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가 글로벌 정식 출시 전부터 스팀 최고 동시접속자 17만명을 넘기며 흥행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유료 이용자만 참여할 수 있는 얼리 액세스 단계에서 엔씨의 앞선 글로벌 MMORPG ‘쓰론 앤 리버티(TL)’의 약 3배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 아이온2가 5일 글로벌 정식 출시에 나서면서 국내 MMORPG 중심이라는 엔씨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이날 북미·남미·유럽·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 아이온2를 정식 출시한다. 글로벌 서비스는 PC 게임 플랫폼 ‘스팀’과 엔씨의 자체 플랫폼 ‘퍼플’을 통해 제공한다.

아이온2는 정식 출시에 앞서 지난달 30일 파운더스 팩 구매자를 대상으로 얼리 액세스를 시작했다.

출발은 순조롭다. 아이온2는 얼리 액세스 시작 당일 스팀 매출 기준 ‘톱 셀러’ 글로벌 차트 1위에 올랐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 12개국에서도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정식 출시 전 스팀 위시리스트 등록 수도 130만건을 넘어섰다.

이용자 지표에서도 기존 엔씨의 글로벌 MMORPG를 뛰어넘었다. 스팀 통계 사



아이온2 대표 이미지

/엔씨

이트 스팀DB에 따르면 아이온2는 얼리 액세스 시작 약 3시간 만에 최고 동시접속자 17만1530명을 기록했다. TL이 2024년 글로벌 얼리 액세스 당시 기록한 최고 동시접속자 5만6910명과 비교하면 약 3배 규모다.

특히 아이온2의 기록은 정식 출시 전 유료 상품인 파운더스 팩을 구매한 이용자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식 출시 이후에는 무료 플레이 방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이용자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초기 이용자 유입이 장기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얼리 액세스 이후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서버 대기열과 과금 구조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식 출시 이후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서버 안정성과 이용자 유지율 등이 향후 흥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온2의 글로벌 성과가 주목받는 것은 엔씨가 최근 추진해 온 사업 체질 변화

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엔씨는 기존 리니지 지식재산권(IP)과 국내 MMORPG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시장과 신규 장르를 확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실제 엔씨의 올해 2분기 매출 7705억원 가운데 해외 매출 비중은 52%로 국내 매출 비중 48%를 넘어섰다. 아시아 지역이 전체 매출의 25%, 북미·유럽 등이 27%를 차지했다. 해외 매출 비중은 4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도 MMORPG에만 머물지 않는다. 엔씨가 인수한 글로벌 모바일 게임 플랫폼 저스트플레이가 연결 실적에 반영되면서 모바일 캐주얼 사업은 2분기 16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22% 수준이다.

신작 포트폴리오도 해외 시장을 겨냥해 넓히고 있다. 아이온2가 북미·유럽 등 서구권에서 엔씨의 MMORPG 경쟁력을 시험한다면 서브컬처 역할수행게임(RPG)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는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다.

엔씨가 퍼블리싱하고 디나미스윈이 개발하는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는 지난달 도쿄게임쇼 2026에서 처음으로 시연 버전을 공개했다.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글로벌 비공개 베타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네이버 ‘통합교섭’, 노동위 판단 받는다

15개 계열사 사용자성 쟁점

네이버와 15개 계열사를 하나의 교섭 테이블에 앉히려는 노동조합의 통합교섭 요구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지난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IT업계에서 통합교섭 요구를 두고 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 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열고 네이버와 15개 계열법인을 대상으로 통합교섭을 요구해왔다. 이후 세 차례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네이버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경우 7일 동안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다.

노조는 계열사 지분 구조와 매출·사업

의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근거로 네이버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이버는 계열사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과거 노동위원회가 네이버와 계열사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한 사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2022년 경기·서울·강원 지방노동위원회가 계열사 조정을 함께 진행했고, 2024년에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조정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향후 네이버 통합교섭의 향방을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네이버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다수 계열사를 둔 다른 IT 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IT·플랫폼 기업은 법인이 나뉘어 있더라도 인사나 보상, 사업 운영 과정에서 모회사의 영향력이 큰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판단은 법인상 고용주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근로조건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어디까지 사용자성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LG유플러스, ‘유독’ 해외 AI 구독 확대

‘뱅크’와 협력… 내달 영상편집 AI 첫선

LG유플러스가 해외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앞세워 구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구독 플랫폼 ‘유독’이 해외 AI 서비스 도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구독 플랫폼 기업 ‘뱅크’와 협력한다. 오는 11월 영상편집 AI 서비스를 처음 선보이고, 이후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AI 신규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고객들의 구독 수요가 콘텐츠 중심에서 업무 생산성, 창작 활동 지원 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AI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고객들은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개별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해외 AI 서비스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외 AI 콘텐츠 서비스 발굴 ▲신규 구독 서비스

연동 ▲고객 수요에 맞춘 결합상품 기획 ▲디지털 구독 생태계 확대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뱅크의 구독 연동 플랫폼인 디지털 벤딩 머신(DVM)을 활용한다. 뱅크는 전 세계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사, 플랫폼 기업을 연결해,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동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DVM을 활용해 유독 내 신규 서비스의 계약과 시스템 연동, 상품 출시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AI 및 콘텐츠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선보이고 고객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KT, 일본 장기체류 통신 가입 간소화

‘티티 모바일’ 출시

KT가 일본 장기 체류를 앞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현지 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KT 재팬은 출국 전 일본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알뜰폰 ‘티티 모바일’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티티 모바일은 일본 입국 전 현지에서 사용할 전화번호를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일본 현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입국 후 일본어로 된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대상은 유학·워킹홀리데이·주재원·파견·출장 등으로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 고객들이다.

앞으로 일본 장기 체류가 예정된 고객들은 여권이나 패스(PASS) 앱 간편 인증으로 현지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입국 후 한국에서 받은 유심을 개통 신청하면 NTT 도코모 망을 통해 일본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요금은 한국에서 발행한 가입자 명의 카드로 결제된다.

/조민선 기자

“AI 수요 여전… 기술보다 재무여력 갖춘 기업에 투자해야”

인터뷰 목대균 KCGI자산운용 대표

“기술·설비투자 경쟁서 신용으로
AI·반도체 상승 여력 여전히 유효
내년까지 HBM 공급 부족 가능성”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이 커질수록 시장의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기술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넘어, 막대한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 목대균 KCGI자산운용 대표는 AI 수요와 반도체의 이익 증가에 기반한 투자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의 재무 여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사이클은 기술에서 자본 지출로, 다시 신용 사이클로 넘어왔다”며 “투자는 잘되는데 돈을 갚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중요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세대 해외펀드 매니저로 꼽히는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업계에 입문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장을 지내며 인사이트·글로벌그레이트퀀텀 등 대표 해외펀드를 운용했다. 현재는 KCGI자산운용에서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AI 성장 이어져도 조달 비용은 부담

목 대표가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빅테크의 신용 스프레드다. 기업이 국제보다 얼마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돈을 빌



목대균 KCGI자산운용 대표.

리시지를 통해 시장의 위험 평가를 읽는다. AI 투자 규모가 커지고 차입이 늘면서 기술과 수요뿐 아니라 금리와 부채가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로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용시장과 국제시장이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높은 금리만으로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차입 부담이 큰 기업은 조달 비용 상승이나 매출 둔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드러나는 대상으로는 오라클과 코어위브·네비우스 등 네오클라우드 업체를 꼽았다. AI 인프라 수요가 늘더라도 확보한 계약을 매출로 바꾸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장성과 별개로 투자비를 감당하고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AI 산업 전반을 과잉 투자로 보

지는 않았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단위인 토큰 사용량과 컴퓨팅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자금 조달 역시 회사채와 구조화 금융, 합작법인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목 대표는 “자본은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비용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AI 수요가 사라지는 문제보다,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그 이후 남는 수익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반도체는 실적이 견인…가격과 투자 계획 확인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도 성장 기대와 실제 이익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먼 미래의 기대를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한 국면보다 실적 개선이 주가를 끌어가는 국면에 가깝다는 평가다.

그는 “이익 증가에 기반한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며 “2027년까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공급 부족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고 말했다. 주가 조정 과정에서도 기업 이익은 늘었지만, 시장이 향후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면서 주가에 적용하는 배수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낮은 주가수익비율(PER)만으로 주식이 싸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반도체처럼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호황기에 이익이 급증하면서 PER이 낮아보일 수 있다. 이후 이익이 줄면 투자 매력도 달라지는 만큼 현재 실적보다 앞으로의 업황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목 대표가 우선 살피는 지표는 DDR5 등 메모리의 현물·계약가격과 재고, 빅테크의 설비투자 계획이다.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거나 빅테크가 투자 규모를 줄이면 기존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정 시점을 정해 매도하기보다 이익을 뒷받침하던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대응한다는 것이다.

투자 기회도 반도체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장기 수요가 이어지는 전력기기와 반도체 설비투자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광통신을 관심 대상으로 꼽았다. 보안 소프트웨어와 지배구조 개선이 진행되는 금융주도 살펴볼 만하다고 봤다. 다만 유망 업종을 고르는 것만큼 각자의 투자 기간과 위험 부담에 맞춰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망보다 대응…“자기 숫자에 책임져야”

이처럼 목 대표의 투자 판단은 하나의 전망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투

자에 앞서 금리나 설비투자 흐름이 어떻게 바뀌면 판단을 수정할지 정해두는 방식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금리와 환율을 맞히려 하기보다, 변화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데 무게를 둔다.

그는 확신과 고집의 차이도 반대 증거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찾았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모으면 판단이 기울기 쉽다. 불리한 근거까지 비교한 뒤 위험 대비 기대수익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는 운용팀을 둘로 나눠 한쪽은 주식시장이 반등할 근거를, 다른 쪽은 부진이 이어질 근거를 모으도록 했다. 양쪽의 자료를 비교하며 투자 비중을 조정했고 성과로 이어졌다. 다만 그는 “좋은 시점에 바꿀 수 있었던 데는 운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공한 경험이 다음 판단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경계다.

목 대표는 “좋은 정보”는 많아졌지만 ‘좋은 판단’은 오히려 희소해졌다”며 “AI가 수많은 제안을 해주더라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운용자의 역할 역시 판단과 그 결과에 책임지는 데 있다고 봤다. 그는 “투자자는 자기 숫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실제 운용 성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자로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꼽았다. 목 대표는 “AI 시대일수록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좋은 인적 자산을 보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KCGI자산운용을 운용자산 10조원 이상의 종합자산운용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종투사 문턱 3조… 증권사 몸집 불리기 사활

한화투자, 최대 9000억 자본 확충 교보증권·우리투자증권 3조 목표

증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진입을 위한 ‘3조원 자기자본’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연내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 9000억원에 달하는 자본 확충이다. 유상증자는 한화자산운용이 보통주 2500억원, 한화생명이 전환우선주 2500억원을 각각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화투자증권의 올해 6월 말 기준 자기

자본은 2조2674억원이다. 유상증자 5000억원이 반영되면 자기자본은 약 2조7674억원으로 늘어난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단순 합산 기준 자기자본이 3조167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은 종투사 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제 종투사 요건을 충족하려면 추가적인 이익 누적이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교보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3조원 진입을 목표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교보증권은 2029년까지 자기자본 3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우리투자증권은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교보증권이 2조2406억원, 우리투자증권이 2조2278억원 수준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당시 약 1조1500억원 수준이었던 자기자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우리금융지주는 2023년 말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우리금융은 추가 출자를 통해 3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본 확충이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투자증권은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도약 의지를 밝히고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7%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ROE는 2%대에 머물렀다. 자기자본이 커질수록 같은 수준의 ROE를 유지하기 위한 순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자본 확충 이후 수익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

로 꼽히기도 한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557억원으로 전년 동기(617억원)보다 줄었고, 자기매매손익도 379억원 흑자에서 313억원 적자로 전환된 점이 주목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해외결제 취소 후 환급액 줄었다면… “환차손 확인”

금감원 Q&A

해외 카드결제 환율 주의보
카드사에 보상 여부 확인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는데 처음 결제한 금액보다 적은 돈이 돌아왔다면 환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하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원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 시점의 환율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환율 하락으로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환차손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늘자 해외카드 이용 단계별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해외카드결제는 카드 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됩니다. 이후 결제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원래 거래를 확인해 당시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가맹점의 취소 처리 과정에서 승인번호 등 결제정보가 빠지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 취소 등으로 원래 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취소 시점의 환율이 적용돼 처음 결제한 원화 금액보다 적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결제를 취소한 뒤에는 실제 취소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것이 아니라 원화로 얼마가 돌아왔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취소된 원화 금액이 당초 결제금액보다 적다면 카드사에 환차손 보상 대상

인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해외 사용 보안설정과 결제알림을 활성화하고 이용 국가와 기간, 한도를 필요한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원화결제(DCC)를 원하지 않는다면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제할 때는 가급적 현지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화면이나 영수증에 원화(KRW)가 표시된다면 DCC가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주문내역, 예약확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온라인몰을 이용한다면 취소·환불

조건과 무료체험 이후 유료전환 여부, 구독 자동결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라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나 피해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제 이후에는 카드사 앱이나 알람을 통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해외결제가 발견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소를 요청할 때도 이메일이나 가맹점 공식 채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이용하고 취소영수증과 확인메일, 상담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정윤 기자

BPA-MPA, 입출항 데이터 교환 ‘선박기항 최적화 국제모델’ 추진

송상근 사장, MPA 청사 방문
각 기관 PCS 연계 기항정보 교환
데이터 교환 정확도 최종 점검하고
보안성 검토 후 연내 실제 적용 계획
친환경·탈탄소 분야 협력 논의도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싱가포르해사항만청(MPA)을 찾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선박의 입출항 시각 등 기항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디지털 및 친환경 분야 협력과제 발굴에도 나선다는 데 합의했다. 공사는 또 싱가포르 소재 PSA 인터내셔널(글로벌 터미널 운영사)과도 항만 운영·디지털 전환 등에서 정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송 사장은 이달 초 MPA 청사를 방문해 탄호순 부청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부터 양 기관 실무진이 추진해 온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증 및 현장 적용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항만 간 선박 기항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연계를 추진 중이다. 각 기관의 항만커뮤니티시스템(PCS)인 부산항 ‘체인포털’과 싱가포르항 ‘오션스-X’를 연계해 선박의 예정·실제 입출항 시각 등 기항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 PCS란 선사·터미널·운송사·운송사 등 항만물류 관계자들이 선박과 화물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디지털 정보 플랫폼을 말한다.

지난 4월 데이터 연계에 합의한 이후 교환할 정보와 시스템 연결방식을 확정하고 개발과 시험을 진행해 왔다. 현재 데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이 1일(현지시간) 탄호순 싱가포르해사항만청 부청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PA

이터 교환의 정확도를 최종 점검 중이며 보안성 검토를 거쳐 연내 실제 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

양측은 면담에서 PCO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부산항과 싱가포르항의 협력을 전 세계 항만으로 확산할 수 있는 항만 간 데이터 교환의 대표 모델로 키워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친환경·탈탄소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MPA는 대체연료 공급체계와 안전기준 마련, 친환경 연료의 실증과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육상전원 공급설비 도입, 하역장비 전동화 등 부산항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정책과 실증 경험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송 사장은 이어 싱가포르 소재 PSA 인터내셔널 본사를 찾아 옹키폴 CEO와 면담했다. 양측은 세계 주요 환적항을 운

영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항만 운영과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PSA 인터내셔널은 총 45개국에서 70여 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각각의 환적항 운영 경험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송 사장은 “부산항과 싱가포르항의 협력이 단순 교류를 넘어 시스템 연계와 항만 간 데이터 표준화의 기반을 다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9일 개소한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지점을 중심으로 기관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항만 운영을 비롯해 디지털·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전력도매가격 26% ‘쑈쑈’… 한전 부담 가중

전력거래소 ‘8월 전력시장 운영실적’
평균 SMP, kWh당 148.39원 집계

한전, 정부 전기요금 동결 기조에
6.3% 비싸게 사고 1.2% 싸게 판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력도매가격(SMP)이 킬로와트시(kWh)당 150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도매가격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가격으로, 정부가 제시한 한전의 적자 전환 기준을 넘어선 수치다. 이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8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평균 SMP는 kWh당 148.3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7.40원)과 비교해 1년 만에 26.4% 상승한 수치다.

SMP가 급등한 건 중동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발전 연료의 열량 단가가 크게 오른 탓이다. 실제 LNG 열량 단가는 기가칼로리(Gcal)당 9만3901원, 석탄은 4만174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0%, 31.4% 올랐다.

SMP는 연초 1월 kWh당 104원에서 5월



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뉴스

121원까지 오르다 6월(114원) 잠시 주춤했으나, 7월 134원, 8월 148원으로 하반기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초 발생한 중동 전쟁의 충격이 하반기 전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치솟는 전력 구입비 부담을 한전이 온전히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의 ‘7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7월 기준 kWh당 165.1원에 전력을 구매해 179.7원에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전력은 6.3% 비싸게 사 온 반면, 판매가는 오히려 1.2% 저렴해진 구조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 7000억원, 차입금은

133조원에 달한다. 매일 지출되는 이자 비용만 115억원에 이른다.

구조적으로 연료비 상승분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전기요금(일반용)동결 기조는 14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전 내부적으로는 필요 조정단가를 kWh당 7.3원으로 추산했으나, 정부는 올해 4분기(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비롯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일제히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평균 SMP가 kWh당 146원을 넘어설 경우 한전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월 월평균 SMP(148.39원)는 이미 이 기준선을 넘어섰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지 전수조사’ 잘못된 정보 바로 잡는다

농어촌공사, 현장 설명회 열어
정부 농정 취지, 현장에 제대로 전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에 나섰다. 최근 현장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애로를 듣고, 정부에서 실시 중인 전수조사의 취지와 향후 정책방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관내 농민단체 등 지역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공사의 윤소하 상임감사가 현장을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상임감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되, 정확한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농지제도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의 세대 전환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서 열린 ‘농지전수조사 현장설명회’.

다”며 “정부의 농정 취지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면서도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돼 다시 한번 말씀 올린다”고 했다. 또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상속과 이농, 고령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거짓 영농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의 투기 행위에만 엄정 조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5극3특’ 미래상 AI 공모전 진행

내달 13일까지… 최대 200만원

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변화할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의 시선으로 그려보는 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5극3특 성장엔진 미래지도’ AI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지방 권역을 자생적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된 권역별 성장엔진이 가져올 지역 산업과 주민 삶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영상으로 표현하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는 중부·서남·대경·동남권과 전북·강원·제주 등 7개 권역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성장엔진을 활용한 미래 모습을 담아내면 된다. 브이로

그, 타임슬립, 웹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 가능하며, 출품작은 30초 이상 2분 이내의 AI 영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7개 권역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21점을 선정하며, 수상작에는 최대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접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 및 전용 접수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성장엔진을 통해 달라질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기회”라며 “AI라는 새로운 창작 도구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양 불법투기 행위 3년 연속 증가세

5년간 ‘해양 불법투기 적발현황’
기름류 1221건… 85% 달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무단투기 행위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간 기준으로 다시 300건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양 불법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불법투기 적발 건수가 최근 3년째 늘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09건에서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307건으로 다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름류 투기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1430건 중 기름류가 1221건으로 무려 85%에 달했다. 이어 폐기물 161건(11.3%), 대기오염물질 27건(1.9%), 유해액체물질 21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서별로는 부산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61건, 목포 145건, 울산 100건, 통영 96건 순이었다. 특히 아들 상위 5개 해경서에서 적발된 건수만 전체 불법투기의 53.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해양 불법 배출은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주요 항만과 해역에 상시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사전 계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노화를 되돌리다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6 제약 · 바이오 포럼
 - 주 제 노화를 되돌리다 : 역노화 기술이 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고급 3단 완전자동 양우산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장
강연	15:00~15:40	전해민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문 융합센터 센터장
	15:40~16:2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16:20~17:00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항공엔진특화단지’ 지정… 경남, 7731억 투입

경남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만관 3조대 투자·전문인력 양성 추진
2035년까지 매출 6조·수출 3조 목표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국내 항공 엔진 기술 자립을 이끌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경상남도는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974년 지정된 창원국가산단이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경남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반도체와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2024년 바이오 분야까지 지정됐지만 방위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산 분야 지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규 지정을 결정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상남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뉴시스

도는 올해 2월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해 소위원회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항공엔진은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일부 국가만 독자 기술을 확보한 고난도 산업이다. 핵심 소재와 부품이 국제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는 만큼 기술 확보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로 꼽힌다. 국내 핵심품목 국산화율은 현재 2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해 2040년까지 약 3조3000억원을 투입해 1만6000파운드급 차세대 터보팬 엔

진 개발을 추진한다. 본사업 착수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창원국가산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업체 43곳이 집적돼 있고 재료연구원도 자리 잡고 있어 항공엔진 산업의 핵심 기반을 갖췄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제조·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진주의 시·학·연구 인프라와 사천의 완제기 산업 기반을 연결해 지역 항공우주산업의 협력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2036년까지 7731억원을 투입한다. 특화단지 참여 기

업들도 2조28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산업 기반 확충에 힘을 보탠다.

전문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특성화대학원 공모에 선정돼 172억원을 확보했으며 2031년까지 석·박사급 인력 12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산업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에 더해 고급 인력 공급 체계까지 구축하는 셈이다.

경상남도는 2035년까지 매출 6조원과 수출 3조원을 달성하고 신규 고용 8000명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공엔진 핵심품목 국산화율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최단립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대한민국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기업·대학·연구 기관의 역량을 모아 기술 개발 성과가 기업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항공엔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파주시가 2027년 7월부터 파주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시는 현재 경기도·고양시·김포시와 통행료 지원 방식과 비용 분담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파주·고양·김포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 시간에 일산대교를 이용하면 각 시가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진주시

‘썸데이 진주’ 참가자 모집

진주시가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제24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썸데이 진주’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31~39세 미혼남녀이며 행사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지수 송산마을에서 개최된다.

다양한 공동 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9일 ‘수비능이버섯축제’ 개최

영양군이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능이버섯을 앞세워 지역 농·임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5회 수비능이버섯축제는 먹거리와 직거래 판매장에 체험 프로그램을 더해 방문객에게 수비의 가을을 다채롭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수비면의 산림에서 자란 능이버섯은 독특한 향과 맛으로 지역의 가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군은 축제 기간 먹거리장터와 농·임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해 지역 먹거리의 매력을 알리고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도시공사

‘한국공항인프라 창립 포럼’ 주최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7일 부산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한국공항인프라 창립 포럼’을 한국공항인프라학회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공항 인프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주제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형 가덕도신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이다.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미공항 인프라 확장·고도화 전략과 AI·스마트 기술 기반 공항 시설물의 신소재 적용 연구 등을 발표한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충남도,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 총력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
“청정 충남 위해 행정력 집중할 것”

충남도가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도는 내년 3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방역과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전방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도는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상황실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방역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충남도는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대책은 ▲철새도래지 20개소 52지점 축산차량 등 출입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6년 11월~2027년 2월) ▲전국 ASF 위험지역 42개 시군 돼지 반입 금지 ▲전 주기 취약요인 검사·점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출하 제한 등이다.

홍충완 행정부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고 청정 충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방역 대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군, 노인일자리 사업 실적 ‘우수’

고흥군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고흥군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권역 내 유일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노인일자리 사업의 우수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행기관 부문에서도 고흥군의 성과가 이어졌다. 고흥군노인복지관은 공익활동·공동체사업단 부문에서, 고흥시니

여클럽은 공익활동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흥군은 사업 수행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일 자리를 발굴하고, 참여자 모집과 교육, 활동 관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왔다.

/고흥(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경기도, ‘AI 자립비서’ 시범사업 운영

AI·IoT 활용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장애인의 안전·건강 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AI 자립비서’ 시범사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AI 자립비서’는 자립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 욕구에 맞는 AI·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과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에도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 자립지원주택 194호에 거주하는 장애인 252명과 지원 인력이다. 도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AI 자립비서 이미지.

/경기도

등 자립지원주택 운영기관 46곳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주요 서비스는 AI 활용능력 향상과 여가활동 지원, 위기감지·응급대응 및 안부확인, 식단·복약 등 건강관리, AI 말벗·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인지향상 훈련, 보이스피싱 예방과 금융·계약 관련 위험요소 확인 등이다.

/경기=김예원 기자 ywon@

부산서 ‘한류 포럼·체험 빌리지’ 열린다

케이브릿지인터, 19일부터 행사

케이브릿지인터네셔널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체류형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글로벌 유스 한류 포럼과 문화·관광 일정을 연계해 부산을 외국인 한류를 배우고 즐기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사는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에서 열리며 제1회 글로벌 유스 한류 포럼과 한류 체험 빌리지(K-Experience Villa)로 구성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36년간 근무하고 코리아컨벤션뷰로 실장을 역임한 김기현 연산대학교 교수가 케이브릿지인터네셔널 대표로서 사

업을 총괄한다.

19일 개최되는 포럼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 300명이 참석해 한류와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성용락 정석학원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정길화 동국대학교 한류융합학술원장이 한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지낸 조현래 한성학원 이사과 김태훈 극동대학교 교수, 이재성 경희대학교 교수도 토론에 참여한다.

팔로워 약 500만명을 보유한 멕시코 출신 배우 겸 가수 안드레아 데 알바는 중남미 한류의 인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중국 왕홍 동샤오펜을 비롯해 일본·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 인플루언서 10여명도 참가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호텔의 맛을 식탁으로… 구독·온라인몰·팝업 등 유통 다변화

호텔업계, PB식품 수익원 부상
브랜드 신뢰도를 상품 경쟁력 전환
소금·가정간편식 등 라인업 확대

과거 호텔의 부차적인 식음(F&B) 사업으로 여겨졌던 김치 등 자체 브랜드(PB) 식품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텔의 레시피와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운 프리미엄 제품에 구독과 온라인 판매, 팝업스토어 등 유통 방식을 결합하면서 식품 사업의 수익모델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호텔하면 떠오르는 식품으로는 '김치'가 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소비 빈도가 높은 김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호텔의 미식 이미지를 접목하기 쉬운 품목으로 꼽힌다.

이 같은 성장세를 최전선에서 이끄는 곳은 조선호텔앤리조트다. 대표 상품인 '조선호텔 김치'는 지난해 5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0억 원 고지를 넘어섰다. 조선호텔은 올해 연 매출 목표를 620억 원으로 고쳐 잡고, 오는 2030년까지 김치 단일 품목으로만 1000억 원의



미국 LA 현지에서 진행된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의 김치 시식 행사.

/워커힐호텔앤리조트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이정표를 내 걸었다.

후발주자들의 기세도 매섭다.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지난해 김치 매출은 전년 대비 42% 급증했으며, 워커힐호텔앤리조트 역시 63.8%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업계 전반의 김치 매출이 두 자릿수 연평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김장 문화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 속에 가격이 높더라도 유명 셰프의 레시피와 엄선된 재료

를 고집하는 프리미엄 김치 수요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도 한층 세분화되고 있다. 조선호텔은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프리미엄 김치 정기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며 높은 재구매율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 2월 미국 한국 식품 플랫폼 '올타리몰'에 1.5t을 수출해 사전 예약 물량을 완판시켰다. 롯데호텔은 지난 7월 일본 다이마루백화점 도쿄점에서 김치 첫 해외 팝업스토어를 연 데 이어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 입점하며 유통접점을 다각화했다.

해외 진출 역시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소비환경에 맞춘 상품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통하는 호텔 브랜드와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가는 데서 벗어나 현지 유통과 규제, 소비 방식에 맞춰 제품과 포장 등을 조정하면서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워커힐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9월 미 서부에 '워커힐호텔 김치' 7t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미국 전역 및 3월 호주로 공급망을 넓혀 지난해 기준 해외 누적 수출량 82t을 달성했다. 올 7월에는 프리미엄 라인인 '수펙스 김치' 3종을 추가 수출했다. 워커힐은 현지 통관 기준에 맞춰 한우 육수 대신 버섯·채소 육수로 전환하고 발효 가스 배출용 특수 밸브 포장을 도입하는 등 현지 맞춤형 투자로 올 한 해 100t 수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치에서 물꼬를 튼 호텔 PB 상품은 김, 프리미엄 소금, 가정간편식(HMR)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롯데호텔

앤리조트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자체 브랜드를 적용한 '롯데호텔 소금'과 '초사리김' 2종을 출시해 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으로 확장을 시도 중이다.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도 셰프진이 참여한 자체 김을 내놓았다. HMR 부문에서는 '조선호텔 홈다이닝'이 갈비찜과 탕류 등 프리미엄 라인업을 다졌고, 서울드래곤시티는 보양식과 디저트까지 라인업을 펼치고 있다.

과거에는 호텔 이름을 붙인 상품 자체가 차별화 요소였다면 이제는 호텔이 보유한 셰프 역량과 레시피, 원재료 선별, 브랜드 신뢰도를 상품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객실과 외식 매출에 더해 식품 판매를 별도 수익원으로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호텔을 방문하지 않아도 호텔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에 PB식품을 단순 부대사업이 아니라 호텔 브랜드를 외부 시장으로 확장하는 하나의 사업 축으로 보는 시각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현대백, '명인명촌 김치' 선포… 프리미엄 식품 시장 정조준

일상김치 10종·별미김치 2종 구성
해외 프리미엄 식품시장 출시 계획

현대백화점이 전국 각지 장인의 식재료와 지역 고유의 맛을 담은 프리미엄 김치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3일 압구정본점 식품관에서 배추김치 등 일상김치 10종과 지역 특색을 담은 별미김치 2종으로 구성된 '명인명촌 김치'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후 무역센터점과 판교점 등 주요 점포로 판매를 확대하고 상품 종류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명인명촌은 각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식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상품을 모아 소개하는 현대백화점의 전통식품 전문 브랜드다. 2009년 론칭 이후 장류와 식초, 간장 등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200여종의 전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는 '재료가 곧 레시피'라는 콘셉트로 장인들이 생산한 식재료를 활용한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전국의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김치인 '명인명촌 김치' 대표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명인명촌 김치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김장 문화가 줄고 포장 김치 수요가 늘면서 원재료의 품질과 제조 과정을 따지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명인명촌 김치를 기획했다. 최근 특급호텔을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도 프리미엄 김치 상품을 확대하는 추세다.

명인명촌 김치 전 상품에는 현대백화점이 지난 17년간 명인명촌을 운영하며 발굴한 식재료가 사용된다. 전남 신안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천일염을 비롯해 충남 아산에서 4대째 생산하고 있는 새우젓, 1961년부터 경북 경주에서 국내산 생멸치로 생산한 멸치액젓 등이 대표적이다. 마늘과 고춧가루도 경북 의성과 영양

지역 장인이 생산하거나 엄선한 농가 상품을 사용한다.

김치 제조 과정에서는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배추·무 등 채소류에 지역 장인들의 양념류를 사용한다. 전분가 공품으로 점도를 내는 대신 명인명촌 기장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찹쌀가루를 풀어 직접 만든 찹쌀풀을 사용한다.

명인명촌 김치는 일상김치와 별미김치로 나눠 판매된다. 일상김치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등으로 구성된다. 별미김치는 경북 의성의 토종배추와 콩잎, 인천 강화도의 순무, 전남 강진의 팥대거리 등 지역 특색이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다. 우선 강화도 순무로 만든 순무김치와 전남 여수에서 지란 갖으로 만든 갖김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명인명촌 김치 상품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해외 프리미엄 식품 시장에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신제품

롯데칠성음료
순하리 청레몬진 무가당

롯데칠성음료는 과일탄산주 브랜드 '순하리진'의 신제품 '순하리 청레몬진 무가당(사진)'을 10월 둘째 주부터 할인점과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서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신제품은 알코올 도수 4.5도, 용량 500ml 캔 제품이다. 통과일을 동결 침출하는 방식으로 청레몬의 향과 맛을 살렸으며 설탕과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제주 한림에서 재배된 국산 레몬 품종 '제라몬'을 사용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과일탄산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설탕에 이어 인공 감미료까지 빼 더욱 깔끔한 순하리 청레몬진 무가당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24 캄보디아
캄보디아 출점 모델 확대

이마트24캄보디아가 캄보디아 토종 에너지기업 'BVM페트롤리엄(BVM Petroleum)'과 손잡고 주유소와 편의점을 결합한 새로운 출점 모델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24캄보디아는 첫 주유소 결합형 편의점인 '이마트24 BVM Kour Srov(비브이엠 쿠퍼 스로우)'를 지난해 27일 오픈한 데 이어 연내 주유소 결합형 편의점 2개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마트24캄보디아는 이러한 현지의 교통 및 소비 특성에 맞춰 캄보디아 전역에 위치한 BVM 주유소에 이마트24 편의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역 및 고객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CJ제일제당, 'jari' 美 마케팅 활발… K-증류주 시장 연다

뉴욕·LA서 'jari' 제품 론칭 행사

CJ제일제당의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jari(자리)'가 뉴욕에 이어 로스앤젤레스(LA)에 진출하며 미국 시장 내 접점을 넓히고 있다. 현지 한식당과 바를 중심으로 제품 입점과 매뉴 활용을 확대해 K-증류주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29일(현지시간) LA 다운타운 레스토랑 'Niku X'에서 jari 론칭 행사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달 23일 뉴욕 맨해튼에서 첫 현지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서부 지역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지 다이닝과 바 업계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LA서 열린 jari 론칭 행사에 참여한 현지 업계 관계자가 jari 제품을 시음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jari 제품 3종과 협업 양조장, 한식 페어링 등을 소개받았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양조장과 협업해

선보이는 jari의 제품 구성과 한국 증류주의 특징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뉴욕 행사에는 정식당, 주옥, 주아, 마리, Take 31 등 현지 한식당과 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이후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jari 입점 및 매뉴 활용 문의가 이어졌으며 정식당, 주옥, Cas in Charlie, Take 31, 서울살롱, 나리(Nari) 등 주요 다이닝에서 판매가 예정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jari"를 중심으로 K-푸드와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내 양조장과 함께 K-증류주의 매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U, 즉석 파이류 2종

CU가 최근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파이류 즉석조리 상품 2종을 출시하며 동절기 상품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CU가 이번에 선보인 'CU 콘파이'는 옥수수 크림과 알갱이 필링을 넣은 파이 상품이다. 'CU 애플파이'는 사과 과육과 시나몬 향을 더한 제품이다.

두 제품은 CU 매장 내 워밍기에서 즉석 조리해 판매하며, 손에 묻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전용 패키지도 함께 운영한다. 또 제품 출시를 기념해 한 달 동안 2+1 행사를 진행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치킨, 핫바, 군고구마 등 기존 즉석조리라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즉석 먹거리로도 상품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비만치료 넘어 당뇨·심장까지… GLP-1 ‘만능 대사약’ 진화

일라이 릴리, 파운다요 3상 결과
당뇨병 발생 예측 위험 57% ↓
위고비, 간 지방물 정상 수준 회복
새 적응증 발굴 전략 필요 목소리도

글로벌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가 심혈관 질환 예방, 간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약물로 진화한다. 특히 단일 증상을 표적하기보다 약물 하나로 인체 대사 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 시간)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각각 자사의 GLP-1 치료제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장기적인 장기 보호 효능, 의로비 절감 효과 등을 제시했다.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 파운다요(성분명: 오폴리프론)는 10년 뒤 발생할 당뇨병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일라이 릴리는 파운다요 임상3상(ATTAIN-1)



비만, 당뇨 등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사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임상 분석에서 파운다요 17.2mg을 72주간 투여한 과제중 및 비만 성인의 10년 내 제2형 당뇨병 발생 예측 위험은 위약군 대비 5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용량에서 예측된 10년 심혈관 질환 위험 또한 위약 대비 약 18.0% 줄었다.

일라이 릴리 측은 “비만 환자들의 큰 우

려한 현재의 체중뿐만 아니라 향후 당뇨나 심장병이 발생할지 여부”라며 “이번 분석은 파운다요가 장기적인 질환 위험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료 시스템의 장기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노보 노디스크의 주사형 GLP-1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간 질환 영역에서 예방학적 약물 가치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유럽 당뇨병연구학회 연례회의’에서 위고비 임상3b상(STEP UP) 사후 하위 집단 분석 데이터를 공유했다.

당뇨병이 없는 비만 성인 중 간 지방물이 5%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위고비 7.2mg 및 2.4mg 투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2주차 시점에서 투여군의 88.5%가 간 지방 수치 5% 미만의 정상 범주를 회복했다. 평균 간 지방물은 기준선 8.8%에서 72주 만에 3.1%를 달성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비만 환자 4명 중 3명은 과도한 간 지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결과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심각한 간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 조기에 심장·신장·간 대사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축적하고 있는 GLP-1 계열 약물 데이터는 개별 질환 치료는 물론 만성 질환 관리, 항노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전 규명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역시 이러한 글로벌 연구개발 흐름에 적극 발맞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GLP-1 계열 약물의 진화: 안티-에이징 전략’ 보고서를 통해 시사점을 짚었다.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대사 조절, 염증 억제, 신경 보호, 자가포식 활성화 등에 작용하며 다중 경로를 조절할 수 있음을 집중 조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비만·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이 근감소증, 심혈관, 신장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등 노화 연관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AI 및 멀티오믹스 기술을 GLP-1 연구에 접목해 치료 반응이 우수한 환자군을 선별하고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축적되는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술 및 산업화로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세계학회서 ‘뷰티 정량화’

AI·딥러닝 접목한 연구성과 발표
‘학회 우수 기초 연구’ 탑 10 선정

아모레퍼시픽이 인공지능(AI)과 딥러닝, 디지털 계측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피부과학 성과를 대거 공개하며 ‘K뷰티테크’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9월 28일~10월 1일(현지 시간) 호주 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화장품 학회 ‘IFSCC 콩그레스 2026’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성과 9건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피부 변화와 제품 사용 경험을 정량화하는 등 화장품 개발 방식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 R&I센터 최은정 연구원은 20여 년간 축적한 ‘열 노화’ 연구에 전사체 분석과 딥러닝을 접목한 성과를 발표했다. 피부 노화 진행과 소재 효능을 정밀하게 예측해 노화로 손상된 피부 구조를 회복시키는 최적화 소재를 발굴했다. 피부장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성과로 평가받아 ‘학회 우수 기초 연구’ 탑 10에 선정됐다.

아모레퍼시픽 R&I센터 이정유 연구원



지난 9월 28일~10월 1일(현지 시간) 호주 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화장품 학회 ‘IFSCC 콩그레스 2026’에서 이정유 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은 제품을 바를 때 일어나는 수분의 이동을 실시간 시각화하고 미세한 전기적 변화를 측정하는 ‘디지털 제형 기술’을 선보였다. 감성 영역에 머물던 화장품의 ‘사용감’과 ‘피부 반응’을 객관적 데이터로 전환해 ‘학회 우수 응용 연구’ 탑 10에 이름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 미주 R&I센터 신진섭 연구원은 브라질·멕시코 소비자에서 더마 코스메틱 제품을 비교 분석했다. 또 인공지능 영상 인터뷰를 진행해 신개념 글로벌 소비자 분석 모델을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 서병희 R&I센터장은 “아모레퍼시픽은 세계화장품학회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피부과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렸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피부과학 연구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를 통해 연구를 예측과 정량화, 데이터 기반 소비자 이해로 확장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피부의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홀리스틱 롱제비티 솔루션’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한미사이언스, ‘프로-감’ 브랜드 강화

‘레티노 에이트 크림’ 출시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약국 전용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프로-감’의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군을 강화하며 K뷰티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미사이언스는 신제품으로 ‘레티노 에이트 크림’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수면 시간 동안 모공, 주름, 탄력 등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관리해 준다. 주로 밤 시간대에 사용하면 된다. 기존 레티놀 대비 피부 자극 부담을 크게 낮춘 차세

대 레티노이드 유도체를 핵심 성분으로 처방했다.

여기에 레티놀 성분 특유의 건조함을 완화하기 위해 판테놀을 결합한 스피쿨, 저분자 히알루론산, 프로폴리스, 마데카소사이드 등을 배합했다. 유효 성분의 흡수력은 높이고 자극은 최소화한 기술도 집약했다.

이와 함께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인 ‘E GF 액티브 바이탈 크림’은 대용량(50mL)으로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을 갖췄다. 첫 주문 당시

약국의 절반 이상이 재주문할 만큼 피부 진정 효능을 검증받았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대용량 출시로 약국 중심의 재구매 소비자와 K약국 쇼핑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최근 약국가에서 피부과 시술 후 사용하는 애프터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 역시 K미용의료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약국 화장품은 K뷰티 영역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고기능성 제품군을 지속해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유니참, 탭 팬티형 생리대 국내 첫 출시

바지 안 벗고 생리대 교체 가능

LG유니참이 외출 중이나 야외 활동 시 신발과 바지를 벗어만 교체할 수 있는 팬티형 생리대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 LG유니참은 국내 최초 ‘탭 팬티형 생리대’ 쏘피 이지웨어팬티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입는 생리대는 샘 방지 효과가 뛰어나 주로 밤이나 양이 많은 날 사용돼 왔으나 교체하려면 탈의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함이 있다. 쏘피 이지웨어팬티는 허리밴드 양옆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이지 탭’을 갖춰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간편하게 생리대를 탈착 가능하다.

착용 후에도 탭 부착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개인 체형과 몸 상태에 맞춰 조정하면 된다.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도 팬티형 특유의 안심할 수 있는 착용감과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쏘피 ‘이지웨어팬티’ /LG유니참

LG유니참은 여성 소비자들의 다양한 일상, 수면 등 생활 방식과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제품을 지속 선보여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유니참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먼저 출시돼 여행객들 사이에서 소용 필수템으로 입소문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제품 선택 폭을 넓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극건조 피부에 ‘고보습 장벽’

‘딥 베리어 프로’ 5종 선보

동아제약은 메마르고 거친 극건조 피부를 위한 고보습 스킨케어로 ‘딥 베리어 프로’ 5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들은 큰 일교차와 찬바람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쉬운 환경기에 활용 가능하다. 전 제품에 판테놀, 시아버터, 알란토인을 조합한 ‘판테놀 오인트 콤플렉스’를 처방했다. 특히 유효 성분을 피부 지질 구조와 유사한 미세 입자로 감싸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동아제약의 지질 나노입자(LNP) 특허 기술을 집약해 흡수율을 대폭 높였다.

대표 제품인 ‘딥 베리어 프로 크림제’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외부 물리적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관리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대조군 대비 1.88배 우수한 피



‘딥 베리어 프로’ /동아제약

부 장벽 개선, 사용 전후 깊은 보습 20.08% 개선 등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피부 건조 정도와 사용 부위에 따라 선택 가능한 ‘로션제’, 핵심 성분을 특수 시트에 담아 집중 공급하는 ‘땀핑 마스크’, ‘핸드 크림제’, ‘딥 겔제’ 등도 출시한다.

/이청하 기자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접수기간 연장 공고

보다 많은 우수 SW·AI 제품·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및 혁신 인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



접수마감 연장

~~2026. 9. 30.(수) 18:00~~



2026. 10. 16.(금) 18:00



시상

2026년 11월 말 예정

2026년 9월 29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시상 개요

정부의 AI 대전환(AI)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 혁신과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 SW·AI 제품·서비스,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 기술 연구개발(R&D)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포상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메트로경제



후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상 부문

시상 부문	시상 대상
제품·서비스 부문	우수 국산 SW·SaaS·AI 제품 및 서비스
AI 활용 우수사례 부문	모범적·혁신적 AI 활용 사례(적용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인재 부문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활용 확산에 기여한 개인



AI 활용 우수사례란?

AI 기술을 실제 업무 또는 산업 현장(공공·민간)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사례를 의미합니다.

- ✓ AI를 적용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생산성 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
- ✓ 국민·고객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안전·환경 개선 등 정량·정성적 성과가 확인되는 사례
- ✓ 타 기관·기업으로의 확산·적용 가능성이 높고 사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례
- ✓ AI 윤리·신뢰성·보안 등 책임 있는 AI 원칙을 준수한 사례



시상 내역

총 13점 내외
(예정)

구분	시상 내용
부총리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기관장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언론·단체장상	메트로경제, 전자신문, 한국SW·ICT총연합회장



신청 안내

- 접수마감 : **2026. 10.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한국SW·ICT총연합회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awards@kswict.or.kr
- 제출서류 : 부문별 포상 신청서, 공적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시 상 : **2026년 11월 말 예정**
※ 신청 자격, 제출서류 작성방법, 세부 심사기준 및 관련 서식은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안내서 및 신청 관련 서식은 한국SW·ICT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다운로드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심사
(요건심사)

2차 심사
(전문심사)

최종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시상



문의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 Tel. 02-858-8510

※ 본 공고는 2026년 8월 28일 최초 공고의 접수기간 연장 사항을 반영한 안내입니다.



코스콤, 안양시에 ‘IT희망교실’ 1호 공간 개소
코스콤은 지난달 30일 경기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교육 공간인 ‘코스콤 IT희망교실’ 1호 공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신정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장, 윤창현 코스콤 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류승용 비산종합사회복지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HK이노엔, 성남 청계산 생물다양성 탐사 동참
HK이노엔이 지난 1일 경기 성남의 청계산 옛골 일대에서 ‘2026 성남 청계산 생물다양성 탐사’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탐사는 성남시와 관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협업 기관이 지역 생태 변화를 지속 추적하는 활동이다.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고 탐사 장소는 5년 주기로 순회한다. HK이노엔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여했다. /HK이노엔



동원그룹-스타키스트,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동원그룹과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는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홀리데이 인 리버워크에서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미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진호전투협회(Chosin Few) 연례 행사로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 8명과 가족, 민은홍 스타키스트 대표(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세인 자로즈 장진호전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원그룹



스타벅스, 전국 5개 매장에서 청년 아티스트 공연
스타벅스가 매장을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 무대로 활용하며 문화예술 인재 지원을 이어간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5개 매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 문화예술 인재 지원 프로그램 ‘별빛 라이브’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스타벅스



상명대, 대학 내 폭력예방 대응체계 구축 ‘맞손’
상명대는 지난 2일 종로구 서울캠퍼스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교류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 내 폭력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왼쪽부터)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과 김종희 상명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명대

허일섭 “임직원, AI·데이터 활용해 일하는 방식 혁신”

(GC 회장)

GC녹십자 59주년 기념식

“알리글로 필두 주요 사업 성과 60주년, 각 가족사가 축적한 기술·성과로 더 큰 가치 구축”

GC녹십자가 국산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첨단기술 중심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 사업 영역에 AI를 이식해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내고 계열사 간 기술 융합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GC녹십자는 지난 2일 경기 용인 본사에서 10월 5일 창립일을 기념하는 ‘창립 제 5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16개 계열사와 오창, 화순, 음성공장의 임직원들이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GC녹십자는 우선 알



지난 2일 경기 용인 소재 목암타운에서 열린 ‘창립 제 59주년 기념식’에서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이 창립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GC그룹

리글로의 미국 시장 안착을 조맹해 핵심 사업의 글로벌 성과를 확인했다. 또 생산성 제고와 계열사 협업 극대화으로 전반에서 가치사슬을 강화한다는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은 “올해 핵심 사업에서 미래 성장축을 확보하며 큰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며 “알리글로를 필두로 각 가족사의 주요 사업이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일섭 회장은 “AI와 데이터 활용 역량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모든 임직원이 이를 적극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오는 2027년 창립 60주년

에 대해서는 “각 가족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경험, 성과와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GC그룹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녹십자대장’의 영예는 남효정GC녹십자Discovery2팀장이 안았다. ‘녹십자장’은 배백식 GC녹십자 전략/사업개발실장, 김영석 GC녹십자EM 기술영업1팀장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오창택GC녹십자웰빙MA/TR팀장 등 66명은 우수 표창을, 김석훈 이니바이오 대표를 비롯한 332명은 근속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GC 준법지원실 경영진단팀 등 23개 팀은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TCR 월드투어’ 5라운드 우승

‘더 뉴 엘란트라 N TCR’ 한국 경기서 우승 달성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6 TCR 월드투어’ 한국 경기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는 ‘더 뉴 엘란트라 N TC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최된 ‘2026TCR 월드투어’ 5라운드에서 우승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TCR월드투어 한국 경기가 열린 인제 스피디움은강원도인제의산악지형을 활용한 20개의 다양한 코너와 큰 고저차를 이용한 까다로운 구간이 배치돼 드라이버의 기술

적이고 리듬감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더 뉴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출전한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팀의 미켈 아즈코나 선수는 3일 진행된 첫 번째 결승 레이스와 4일 치러진 세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1위에 오르며 총 89포인트를추가하며 2026시즌 드라이버 순위 1위를 유지했다. 함께 출전한 노버트 미첼리즈 선수는 총 70포인트를 얻어 2026 시즌 드라이버 순위 2위에 올라섰다.

BRC 현대N 스쿼드라 코르세팀은 이번라운드까지 총583포인트를 획득하며 팀 부문 종합 순위2위를 유지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 4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최된 ‘2026 TCR 월드투어’ 5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한 미켈 아즈코나 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 /현대차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고용 기업 수상

중장년고용 강조주간 기념식

노사발전재단이 중장년 재취업 사례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최근 ‘지역을 잇다, 중장년을 키우다’를 주제로 제21회 중장년고용 강조주간(9월28일~10월2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된 중장년 5명·기업 12개소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최명철씨(48·선린 군무)는 코로나19로 인해 10여 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중장년내일센터의 경력개발상담을 받았다. 이후 중장년내일센터의 ‘반도체 단기직무교육’(4일) 및 한국폴리텍대학반도체융합캠퍼스의 중장년반도체 특화과정(4주)에

참가해 반도체 엔지니어 근무를 최근 시작했다.

해양공사(화물포장·검수, 부산 구)는 부산지역 검수기업들과 함께 채용 전 구직자들이 항만검수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에 중점을 기울였다. 특히 부산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견학·직무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 인재를 채용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은 협력기업과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모델을 만들었다. 양사가 참여하는 ‘경력개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노동자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운영 지침에 명시했다. 또 교육 참여시간 전부를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노트북 기증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일 선한사마리아원에서 ‘꿈 도서관 9호’ 개관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꿈 도서관은 아동복지시설의 노후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에는 도서관 리모델링과 함께 노트북을 기증해 독서와 디지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관식에는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김순이 월드비전ESG사회공헌본부장, 송한철 선한사마리아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참벗나눔 봉사단’은 어린이들과 모뎀꽃 화분 만들기과 미니 운동회를 진행하고 푸드트럭 간식을 제공했다.

김 사장은 “어린이들이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무한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이 지난 1일 용인 선한사마리아원에서 열린 ‘꿈 도서관’ 개관식에서 송한철 원장 및 원아들이 건넨 감사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역아동센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과 취약계층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건국대, 학생 창업팀 발굴·성장 지원

‘학생창업유망팀300+’ 85명 선정

건국대학교가 학생 창업팀의 발굴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건국대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2026 학생창업유망팀300+’에 학생 85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학생창업유망팀300+’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학생 창업팀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

램이다. 올해 건국대 선정 인원은 지난해 43명에서 85명으로 늘었다.

전체 선정자 중 건국대생이 대표를 맡은 팀은 18개로, AI·소프트웨어, 친환경·자원순환, 바이오·웰니스, 하드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스라엘 출신 리오르(국어국문학과) 학생이 대표로 있는 ‘도전’은 유학생 트랙 선정팀 중 1위에 올라 대상을 받았다. 이들은 히브리어 사용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발인 6일 오전 9시30분, 장지 광산구 본량동 선영. 062-572-1000.

▲손정영씨 별세, 김말순씨 남편상, 손동의·진이씨 부친상, 조영진씨 시부상, 김영수(YTN 보도제작국 시사제작팀장)씨 장인상=5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8시. 02-2227-7500.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경기지방노동청장 양정열

◆국가보훈부 ◇국장급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윤취탁

부음 ▲오점임씨 별세, 이현행(뉴시스 전남광주본부 기자)씨 외조모상=4일, 전남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301호,

창문이 사라지고 있다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어느 날 늘 바라보던 풍경이 암흑으로 변했다. 창문은 있지만 창문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 창문을 투과해 들어와야 할 빛이 사라졌다. 열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서울의 주요 도심마다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대형 전광판 이야기다.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 창문의 사전적 정의이다. 최근 광화문이나 명동 일대에 설치되는 미디어 파사드 중 일부는 창문 전면에 세로 줄 형태의 프레임이나 구멍이 뚫린 메시형 LED를 사용한다. 설치를 주관한 이들은 프레임 사이로 햇빛이 통과되어 창문 전체를 막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현행 법도 사무실에 일정한 밝기만 요구할 뿐, 햇빛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들 대형 전광판이 규제를 빙거 설치될 수 있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가능케 하고 있어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디지털 옥외

광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모양과 크기, 색깔과 설치 방식에 있었던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최근 광화문에 설치된 전광판은 건물 외벽 전체를 LED로 감싸고 있다. 말 그대로 미디어 월이다. 거대한 몸집과 번쩍이는 인공의 눈으로 우리를 대상화하고 있다. 전광판 건너에 머무는 사람들은 전광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눈맞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전광판 앞 사람들도 스크린의 시선에 갇혔다. 육중한 미디어의 벽이 도시를 압도한다. 유현준 건축가 역시 자신의 유튜브 매체에서 대형 전광판을 도시미관을 해치는 빛공해로 규정하며, 고개만 들면 미디어 정보가 쏟아지는 도시에서 시민들에게는 안 볼 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의 불편에도 아랑곳없이 대형 전광판은 우후죽순 늘고 있다. 대나무밭에 쏟아지는 거센 비와 같은 존재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자유표시구역에서 전광판을 설치한 건물주는 일정 비율 이상 공공 콘텐츠를 송출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건물주와의 삼각관대가 도심에 인공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도시의 거리와 광장은 모두의 것이다. 그 모두에는 전광판 너머, 전광판 앞 그곳에서 머물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제도는 특정 산업의 성장이나 광고산업의 필요성,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 모두를 객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규제 개선은 특정 산업과 특정 건물주, 돈 많은 광고주, 홍보가 필요한 정부를 위해서만 쓰여서는 안 된다. 건축물과 인간의 조화, 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창을 통해 날씨를 보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통해 하늘과 조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가닿아야 한다.

법이 말해야 한다. 채광은 장시간 상주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건강권, 생체 주기 유지, 쾌적한 실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빛 환경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시민은 ‘규제를 쫓다’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도시와 건축물이 누군가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법이 말하는 공공복리가 아니다.

‘지금 바람의 온도는 어떠한가요?’ 나는 망설이며 질문한다. 거리 건물들의 대형 전광판 안쪽 어둠에 갇힌 노동자에게 나의 망설임은 전해질 수 있을까. 전광판이 만든 어둠과 열기가 미로가 되어 그이의 하루를 해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국내 제약바이오, 어항 밖 큰 물고기의 시대



기지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

물고기를 잡았다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내려온 이 격언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낸다.

기존 성공 방정식은 국내 연구진이 발굴한 초기 후보물질을 글로벌 빅파마에 넘기는 기술수출을 통해 마일스톤을 확보하는 데 치우쳐 있었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단순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상업화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을 이뤄냈다.

HLB그룹은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 신청, 허가 획득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부딪치며 성과를 내고 있다. 해외 바이오텍에서 파이프라인을 도입했고, 국내 기업

으로는 처음으로, 항암 신약 ‘리픽투’를 앞세워 품목허가를 받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높은 문턱을 넘어섰다. SK바이오파의 경우에는 일찍이 미국 현지에서 국산 신약 ‘엑스코프리’로 창출한 현금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체득해 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개발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허가, 상업화 등에서도 자체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낚싯대를 쥔 지금이야말로 낚들에게 쉽게 잡히거나 길들여지지 않을 독보적인 파이프라인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국내 기업의 독자 기술이 반환되는 소식이 들릴 때는 제약주와 바이오주는 단타성 돈벌이 수단으로 폄하됐고 주가는 늘 널뛰기를 반복한다. 다만 이때 낚시를 잘한다고 해서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출 실적

나 주가라는 작은 어항 속 성장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한다.

숫자와 사실만을 좇는 기자의 눈에도 당장의 신약 개발은 손익계산서의 수치로만 평가받는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시장은 신약의 본래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고 돌아서기도 한다. 시장의 그 차가운 눈총에 일희일비하는 조급함이 아닌 더 큰 물고기가 되어 바다를 유영하며 써 내려갈 K제약바이오의 서사에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긴 호흡과 신뢰가 필요하다.

수많은 시련과 성장통을 딛고 끝내 국산 신약이라는 물고기를 키워낸 기업은 마침내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신약의 약물 가치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며 쓰임 받을 때 초기 개발 비용이나 실적으로만 평가받지 않고 인류의 삶을 구한 영원한 이야기로 남아 불멸한다.

/mlee23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6일 (음 8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0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세요. 7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84년생 시기가 맞아 떨어져 이루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하는 일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61년생 만사가 대길 할 운세입니다. 73년생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추세요. 85년생 능력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로랑어

50년생 옳지 못한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62년생 실업자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74년생 밖으로 나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86년생 대수롭지 않은 병이나 절을 수록 조심하세요.



도끼

51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습니다. 63년생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 막힘이 없습니다. 75년생 불안한 거래이더라도 이루어집니다. 87년생 잃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조

52년생 화해로 해결하려 하지만 어렵습니다. 64년생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는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76년생 최악의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88년생 부채로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뱀

53년생 임무를 볼 때 주변의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65년생 분수에 넘치지 않는 행동만 하세요. 77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89년생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말

54년생 유익한 거래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66년생 원수로 돌아설 듯하나 결국 화해합니다. 78년생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좋은 취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55년생 아마도 여성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67년생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여성의 소행일 것입니다. 79년생 귀인은 동쪽이나 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91년생 합격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계획성 없이 일을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68년생 오늘 하루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80년생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세요. 92년생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닭

57년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69년생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81년생 가까운 사람이 곁을 떠납니다. 93년생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개

58년생 친구와 싸우지 마세요. 70년생 모든 일이 발전 일로에 있습니다. 82년생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최적 기입니다. 94년생 뺨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돼지

59년생 쉽게 찾을 수 없으니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71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83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5년생 우정을 돈독히 하세요.



김상회의四季

복성귀인(福星貴人)

사주명조를 살필 때 길신과 희신이 한 기둥에라도 있게 되면 인생의 고비가 다칠 때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힘을 얻는다. 복성귀인(福星貴人)은 뜻 그대로 복록과 생활의 안정의 기운 등으로 삶의 전반적인 풍요가 두드러지는 길신을 의미한다. 특히 복성귀인이 있게 되면 남자의 경우 현처를 만나서 처복 있다는 소리도 듣고 직장에서도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승진도 무난하게 이루는 힘이 강하다. 여자의 경우, 여자들의 사회진출이 거의 없었던 전통사회에서는 남편으로 인해 신분 상승 등의 인복이 엿보인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여성들도 고등교육과 사회진출이 당연시 여겨지니 사회적 또는 직장내 고위급 출세도 기대할 수 있다. 복에도 다양한 종류의 복이 있지만, 무엇보다 복성귀인은 재물보다 인간관계에서의 인복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된다.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행운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혹여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귀인의 도움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나는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인복이 많다는 소리를 듣는다. 다른 말로 복덕 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태도도 진중하고 신의가 있는 성정을 지닌 이들이 대부분이다. 즉, 그들의 평소 품행이나 행동 양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호들갑스럽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품이 모나지 않으며 원만한 경우를 느끼곤 한다. 사주팔자에 천을귀인, 천복귀인, 그리고 태극귀인이 대표적인 복덕귀인, 즉 복덕성을 나타내는 길신들이며 천덕과 월덕이 있는 것도 역시 복덕성의 기운으로 본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도움이 되거늘, 혹은 2개가 있기도 한데 이럴 경우는 위기가 올 때 회복력이 배가된다. 복덕 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인덕이 좋으며, 일주와 시주에 있다면 말년의 반드시 편안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슄도쿠

결란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1	2	8	9	6	8	1
2	8	8	6	2	1	9	1	9
1	6	9	8	1	9	2	2	8
8	1	9	1	2	6	9	8	1
6	9	2	1	8	8	1	2	9
8	1	2	9	9	2	8	1	6
9	2	8	2	6	8	1	9	1
1	1	8	8	9	2	2	6	8
2	8	6	9	1	1	8	9	2

후보지 선정에도 시장 ‘조용’… 추가분담금·주민동의 변수

현장르포

도심복합사업 서울 방배동

3년만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매수문의 등 부동산 움직임 없어 호가 선반영… 추가분담금 부담 다세대·상가 섞여있어 조율 관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할 서울 방배동 일대. 지난 3일 찾은 방배동 822번지 일대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이곳에는 918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지만 후보지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몰리거나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이미 호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공공주도로 사업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토지주 간 이해관계와 추가분담금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경계감이 적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10개 자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2 일대에 ‘이수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현진 기자

치구 11곳, 총 1만7881가구 규모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3년여 만의 신규 후보지 선정이다.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일대 2만2997㎡가 ‘이수역 동측 주거상업 고밀지구’를 후보지로 선정돼 918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오는 2030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노후 저층주거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제도다.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가 없다.

이처럼 일부 절차를 줄였지만 방배동 현장에서 만난 중개업소들의 반응은 아직 신중했다. 후보지 발표가 곧바로 거래시장에 불을 붙이지는 않는다는 것.

방배동 G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발표 이후 문의가 몰리는 분위기는 아니다. 관련 문의도 한 건 정도에 그쳤다”

라며 “이 지역은 이전부터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8억 원 정도 하던 오래된 3층 빌라가 지금은 13억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B공인중개업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이곳 관계자는 “재개발 관련 문의는 원래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 발표 때문에 갑자기 문의가 늘지 않았다”라며 “아직 매물을 갑자기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비슷한 분위기는 이번에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에서도 감지됐다. 이곳에는 404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U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 다기보다 애초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 자체는 상당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주변 방배동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고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인근에는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대미안 원페들라’가 올해 입주했다.

다만 개발 기대감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려면 주민 동의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조합설립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주민 동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복합지구 지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방배동 일대는 다세대·다세대 주택과 상가 등이 섞여 있어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소유자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기간을 두고도 신중한 반응이 나온다. 방배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한 공인중개사는 “공공이 절차를 줄인다고 해도 실제 사업을 끝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건설 공사비 더 오른다… 고비용 장기화 우려

이란전쟁 장기화에 유가·원자재 상승 우레탄 66.5%, 아스팔트 50.8%↑

엔데믹으로 안정되어 가던 건설공사비가 다시 들쭉고 있다. 이란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파르게 오른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본격 반영되면서다. 향후 건설투자나 착공 확대를 발목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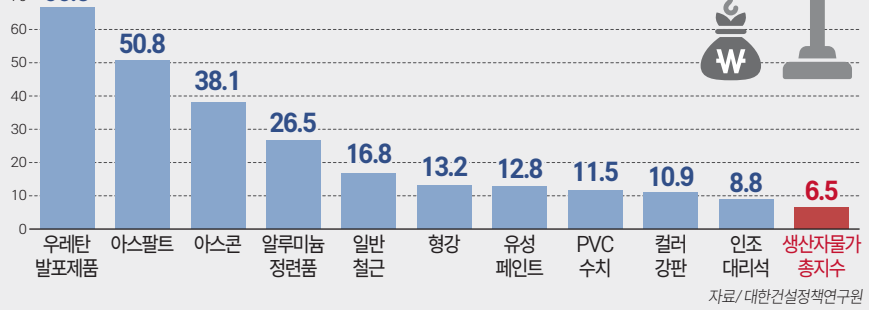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건설공사비지수(2020년 기준)는 138.74로 전월 대비 0.02%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98%나 올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자재의 높은 가격 상승세가 공사비 부담으로 확산되면서 건설공사비지수도 상승했다”며 “건설공사비는 2023~2024년 상승세가 둔화된 이후 2026년부터 다시 올라비용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건설자재별로는 에너지나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계열과 금속자재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집중됐다.

주요 건설자재 상승률

2026년 8월 말 기준. 단위: 전년말 대비, %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올해 8월 기준 생산자물가 총지수 상승률이 6.5%인 데 비해 우레탄발포제품 66.5%, 아스팔트 50.8%, 아스콘 38.1% 등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금속자재 역시 알루미늄 관련 26.5%, 일반철근 16.8%, 형강 13.2%로 총지수를 크게 웃돌았다.

향후 건설공사비의 상승압력과 변동성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인건비 상승에 더해 안전·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부담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다.

건정연은 건설공사비 상승 시나리오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환율 부담, 건설수요 회복에 따른 수급 압력을 반영해 2026년 6.5%, 2027년 5.0% 상승을 예상했다.

건정연은 “향후 건설공사비는 과거 급등기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더라도 높아진 비용 수준의 장기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DL이앤씨, 성수2지구 ‘아크로 성수’ 제안

최고 65층 2381가구 재개발 사업

DL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 사업에 ‘아크로 성수’를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지난 1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성수2지구)’에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다.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성수2지구는 지하 6층~지상 최고 65층, 11개 동, 2381가구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137억원 규모다. DL

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아크로 성수(ACRO SEONGSU)’를 제안했다.

설계와 디자인에는 해외 전문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기본 설계와 구조 분야에는 글로벌 설계 전문 기업 아르카디스와 초고층 구조 설계 기업 에이랩, 골조 시공 기술 기업 도카가 합류했다.

DL이앤씨는 조합원 전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한강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제안했다.

/성채리 기자 cr56@

써밋·투게더·챌린지 3가지 핵심 제시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가 “기본과 내실을 바탕으로 정상에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 대표를 공식 선임하고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을지로 본사 푸르지오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정원주 회장과 노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내외빈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과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대우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경영 방향으로 ‘써밋(SUMMIT)·투게더(TOGETHER)·챌린지(CHALLENGE)’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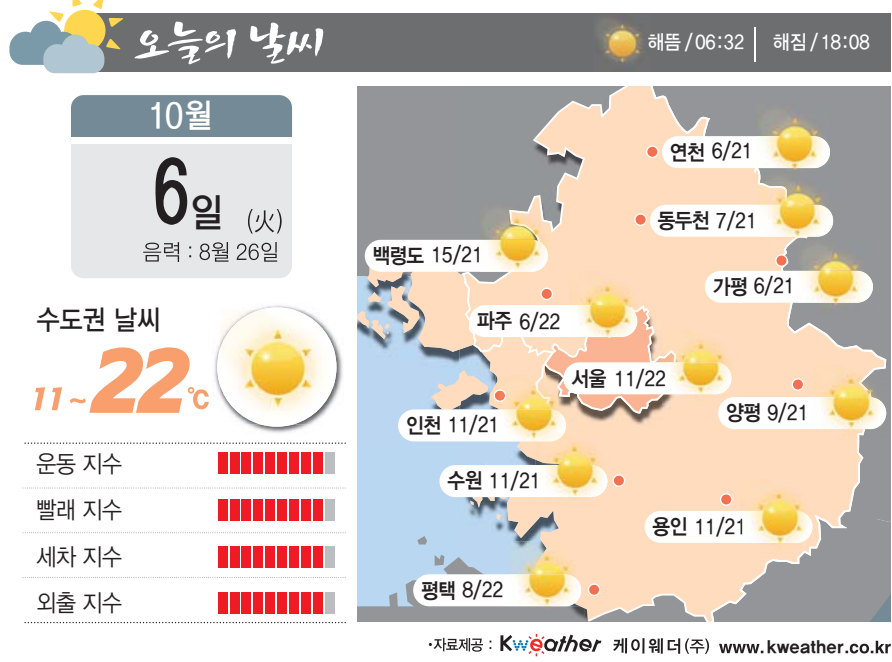
이 대표는 “새로운 미래는 기다린다고



대우건설 이강석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우건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실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에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써밋, 더 높은 목표를 향하고, 투게더,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으며, 챌린지, 새로운 미래에 과감히 도전하자”며 “저부터 앞장서겠다. 함께 정상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한반도 긴장 조성 말했는데…젤렌스키, 또 北 언급하며 “위험한 순간” /사진 뉴시스
▲OPEC+, 11월 원유 생산 목표 유지 합의… ‘협력 선언’ 준수 재확인

▲美NASA, 중력 추적에 ‘달표면 원자로’ 개발 2030년까지 마치기로
▲북·중 간 신압록강대교 12년만에 열리나…6일 개통 주목

▲한국보다 싸다고 샀다가…“잘못 쓰면 구토·복통” 일, 마운자로 경고
▲예멘 정부군 “후티 군사시설 1122곳 공격…1747명 사망”



호텔의 맛
식탁으로
유통채널 다변화
L1



Life

비만치료 넘어
당뇨·심장까지
'만능 대사약'
L2



계열사와 발맞추고, 고객과 함께 기부... 일상에 담은 '상생'



현대백화점그룹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6년 연속 'AA'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로드맵 세워

폐지·페비닐 재활용... 쇼핑백 등 제작
고객 직접 참여하는 환경보호 활동도

고객과 매칭 그랜트로 '기부 캠페인'
네팔 홍수피해 복구,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자립준비청년 후원
공정거래 '최우수', 협력사와 동반성장

안전보건 국제표준 'ISO 45001'인증
ESG 경영위원회 중심 거버넌스 구축

현대백화점그룹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ESG 경영 모범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일상과 사업 역량에 맞닿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라는 평가다.

◆ 외부 평가로 입증된 ESG 경영

현대백화점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2026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받았다. 2023년 하반기 이후 6회 연속이다. 올 상반기 평가 대상 1305개 기업 가운데 AA 등급은 11.7%에 불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기업 중 종합 4위로 'ESG 베스트 기업 100'에 선정됐으며, 유통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ESG 기준(KCGS) 평가에서도 유통업계 유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 대응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백화점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에 따르면 회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CDP 기후 변화 평가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했다. 2030년까지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2035년 32%, 2050년 58% 줄이는 로드맵도 세웠다.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Sc

ope 1+2)은 전년보다 3716tCO₂ eq 줄었다.

◆ 자원순환, 일상의 접점에서 시작

자원순환은 현대백화점 ESG의 핵심 축이다. 2022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폐지 재활용 시스템 '프로젝트 100'을 통해 지난 4년간 100% 재생지 쇼핑백 3200만장을 제작했다. 목재 약 8000톤을 아껴 나무 5만 3000그루를 보호한 효과다. 쇼핑백은 레드닷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상을 받았다.

2024년 6월부터는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개발한 '비닐 투 비닐'을 운영 중이다. 점포에서 나온 폐비닐을 열분해해 새 비닐봉투로 만들어 다시 점포에서 쓰는 모델로, 올해 상반기까지 폐비닐 224톤을 수거해 비닐봉투 약 30만장을 재생산했다. 현재 13개 점포에서 수거 체계를 가동하며, 향후 지방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열사 현대그린푸드도 업계 최초로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단체급식에 도입했다. 올해부터 연 30톤 규모를 공급하며 전국 급식장에서 월 1회 저탄소 돈육 메뉴를 선보인다.

고객이 환경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사단법인 생명숲, 서울시와 함께 운영하는 '서울마이트리'는 고객이 나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 나머지를 회사가 후원하는 매칭 방식이다. 지난해 도심 숲 조성 면적은 1만2636㎡에 달했고 706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서울숲에는 고객이 4㎡ 단위로 선택한 정원이 모여 800㎡ 규모의 '그린프렌즈 가든'이 만들어졌다. 일회용품 감축에도 힘써, 지난해 대화용기 유상판매와 용기 지참 건수를 환산한 일회용품 감축량이 약 49만 개로 집계됐다.

한섬은 2026 서울특별시 환경상 건물에너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사옥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바꾸는 등 에너지 절감에 힘써 2023~2024년 평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9톤 줄였다.

◆ 고객과 함께 나눔, 계열사와 상생

고객 참여형 기부는 현대백화점의 차별점이다. 2022년부터 H포인트 앱을 상시 기부 플랫폼으로 운영하며, 재해 때마다 고객 기부액만큼 회사가 더하는 '매칭 그랜트'를 진행해



현대백화점 '친환경 쇼핑백'이 도입 4년간 나무 5만 3000그루를 살리는 효과를 내며,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왔다. 올해 네팔 홍수 피해 때는 고객 1만 4266명이 포인트 5000만점을 기부했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한 데 매장 행사 수익금을 합쳐 성금 3억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고객 7000여 명이 동참해 후원금 2억원을 마련했다.

리빙·인테리어 계열사들은 본업을 살려 주거 복지에 나섰다. 현대리바트·현대L&C·지누스는 서울시, 한국해비타트와 총 2억원 규모의 '주거안심동행'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집 수리를 지원한다. 종로구 창신동 빈집을 고쳐 만든 '긴급주택' 조성에도 가구와 전자제품을 보냈다. 현대L&C는 한국에너지재단과 손잡고 전국 180여 개 시공업체에 창호 시공 교육을 제공한다.

소상공인·미래세대 지원도 이어진다. 현대이지웰은 복지몰 입점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고, 서대문구에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현대홈쇼핑은 뷰티 소상공인 육성 'TOP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여 명이 참가한 '친환경 어린이 그림대회'와 장애가정 대학·대학원생 장학금 지원도 이어갔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알트원(ALT.1)과 현대어린이책미술관등상설 문화공간을 운영해 한국 메세나협회의 '2025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서 개별 기업 1위에 올랐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올랐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8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가 좋은 파트너사에는 매월 계약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공급망 전반의 기후 대응 참여를 유도한다.

◆ 안전과 신뢰 기반 다진다

올해 6월에는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을 받았다. 본사를 포함한 전국 사업장이 대상이며, 고객·협력사·임직원 대상 안전인식 조사와 폭염·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이 높이 평가됐다. 2025년에는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001도 취득해 디지털 전환 속 고객 안전망을 강화했다.

ESG 경영을 전담하는 ESG 추진협의체와 이사회 산하 ESG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도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성 있는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지난 2일 서울 중구 해비타트 본사에서 진행된 네팔 수해 복구 성금 전달식에서 현대백화점 양명성 영업전략담당 상무(사진 왼쪽)와 마히자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진행된 ISO 45001 인증 수여식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사진 오른쪽)이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문체부, AG 선수단 귀국 환영 행사 예정...“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 감동”
▲“줄 당기는 시농만”...태극기 능장 게양, 日 현저서도 고의성 의혹 /사진 뉴스스

▲축구 대표팀, “군대 안 가요” 발언 사과...축구협회 “품행 관리 노력”
▲“정수진 폭로”에 유도회 공식 입장 발표...“세계선수권 이후 조사할 것”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지자체에 총 61억 인센티브 확정
▲최휘영 “‘암살자(들)’ 평가는 관객 몫...창작자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세상을 바꾸는 금융

최고령 마라토너?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입니다

1955년생 마라토너 신행철

50대 중반, 뒤늦게 달리기 시작했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달려온 끝에
만 71세의 나이로 풀코스 마라톤
70대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으니까요

나이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새롭게 써가는
신행철 마라토너의 빛나는 질주를 응원하며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의 **골든라이프**에
KB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 세계를 휩쓴 1955년생 마라토너, 신행철 |

 KB금융그룹